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http://www.jeju.go.kr/index.htm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555-0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강경숙
이해응
고보숙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555-0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강 경 숙
이 해 응
고 보 숙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555-0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 구 책 임 자 :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이해응(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고보숙(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연 구 기 간 : 2019년 5월 ~ 12월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 은 희**

본 보고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연구 요약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특정성별영향평가란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중인 법령(조례·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상정책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책개선 반영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김둘순 외, 2017)임

○ 타지역의 경우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많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내 최대 관광지이자 고유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정책 분야를 선정[1]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제주의 관광지, 특히 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광광지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반영한 콘텐츠 위주로 개발・운영(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학회, 2019)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역사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2](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2017)를 살펴보면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앞서 제주지역 관광지의 성차별 사례가 언론을 통해 가시화[3]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지금까지 제주지역 관광지 등 관광분야의 젠더 이슈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관광 분야의 젠더 이슈 중 관광지에서 생산·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평등한 관광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됨

2. 연구 내용과 범위

○ 연구 내용

- 제주지역 관광정책 현황 및 젠더 이슈 분석
  - 제주지역 관광정책의 배경 및 변화

---

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확정(2019.3.21)

2) 휴가 및 비즈니스 등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방문관광객 조사결과(2017)에 따르면 '제주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06점(여성 4.11점, 남성 4.00점), '재방문 의향'은 4.18점(여성 '4.26점', 남성 '4.09점', '관광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87점(여성 '3.90점', 남성 '3.83점')으로,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3) 인사이트(2018.9.8.). "여성 팬티 훔쳐보기"... 제주 러브랜드 놀러갔다가 충격 받은 관람객들.

·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의 추진기반 및 정책 현황
· 제주지역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분석
- 관광 콘텐츠 성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관광 콘텐츠 성평등 모니터링 방향 및 지표 개발
·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 의견 제시
·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 의견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 관련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제시

❍ 개념 정의 및 연구 범위
- 관광정책(tourism policy)이란 관광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할 수 있음(정정길 외, 2007)
- '관광 콘텐츠'[4]란 관광지에서 보유하고 제작한 것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유무형의 재화들로 정의함.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관광 콘텐츠'의 범위는 '제주지역 관광지의 전시물과 홍보물'로, 구체적으로 제주지역의 역사문화 및 젠더 이슈와의 관련성이 높은 관광지에 한정함
- '공영관광지'의 개념과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2011.8.17. 제정)」에 따름. 이에 근거하여 공영관광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3. 연구 방법과 절차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주요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 제주지역 역사문화 및 젠더 이슈와 관련된 관광지(28곳)의 전시물과 안내·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 전문가 및 관계자 FGI(2회)
· 공무원 간담회(3회)

4)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체·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를 의미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문화산업진흥기본법)를 말함. 그 외에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함(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관광」이라 함은 예술성, 여가성, 대중성 및 오락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을 말함(경기도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에 관한 조례, 2017). 「문화관광콘텐츠」라 함은 문화관광적 요소가 구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함(경기도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에 관한 조례, 2017)

○ 연구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 연구 검토
3단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2회: '19. 6.27/11.13) • 도내 관계 전문가 FGI(2회: '19. 9.6/10.21) - 관광 및 지역역사문화 관련 민관학 전문가 10여 사례 • 공무원 간담회(도 관광정책과, 성평등정책관: '19. 7.15/9.19/9.30)
4단계	주요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	•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19. 7월 ~ 10월) -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 전문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28개소) - 모니터링 결과 지표별 분석 및 개선안 도출
5단계	분석·집필	➪	• 최종 분석 및 보고서 집필 • 보고서 평가 및 최종 보고

제2장 제주지역 관광정책 현황 및 젠더 이슈 분석

1. 제주지역 관광정책 추진 배경 및 변화

○ 제주지역 관광정책은 지역개발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 1차, 2차산업 순으로 발달한 구조로, 1차산업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광공업 부문이 점증하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산업구조와는 상이한 경제 구조를 특징으로 함(김진영, 1995)

○ 이러한 산업구조는 1960년대 지역개발이 계기가 되었는데,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국가주도에 의해 1960년대 목축업, 감귤산업 등 1차산업의 상업화를 시작으로 1970년대 이후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난 50년 동안의 제주관광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정승훈·송재호, 2013)

- 1950~1960년대(제주관광의 태동기): 교통 및 숙박시설 등 관광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기 시작
- 1970년대(제주관광의 본격화 시기):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과 '중문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국가 주도의 제주 관광개발이 본격화된 시기
- 1980년대(대중관광의 초기단계): 우리나라 대중관광의 초기 단계로서 제주 관광이 본격화된 시기(효도관광 및 신혼여행지).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표선제주민속촌 및 제주조각공원 등 관광지가 등장하기 시작함
- 19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1991)」에 근거,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됨

- 2000년대: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함
- 2010년대: 2010년~2023년까지 제주관광진흥계획 T/F팀이 꾸려지고, 최근 2019년 1월까지 3차 관광진흥계획이 발간됨(제3차 제주관광진흥계획, 2019)

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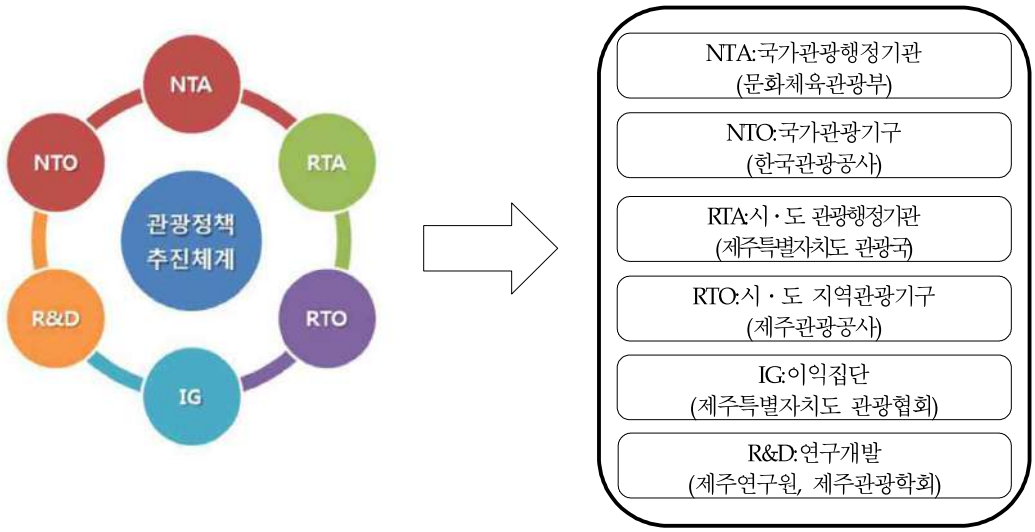
❍ 법적 기반

- 관광 콘텐츠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조례(2014)」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2009)」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2015)」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2011)」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2013)」
  · 유형별 개별 관광지 조례: 역사문화자원형 및 전시박물관형 관광지

❍ 추진체계

- 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 추진체계: 한국의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 협력하는 중앙정부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광국을 중심으로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 등의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음

<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추진체계>



○ 기본계획 및 시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기본계획 및 시책: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기본계획(2012~2021)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연유산관광 중심'이 되는 목표에 응대하는 관광 콘텐츠에 주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안에서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과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 관련 주요 조례 및 제주도 정책>5)

관련 조례	정책 및 시책
문화콘텐츠산업 조례	·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콘테스트 ·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국비직접지원) · 공영관광지 관광 약자 편의시설 보강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추진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다목적 공간 공사 및 기획전 전시 추진
관광진흥조례	·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배치 · 도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대상자 실무수습배치 준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관광콘텐츠) 기념품 공모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대상자 이론교육 실시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배치계획 수립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제작사업 시행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 공영관광지에 대한 정책과 시책은 각 부서별 해당 사항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

3. 제주지역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정책6) 분야 젠더 이슈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정책 분야 성인지정책 대상사업 유형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젠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문화체육관광시설 조성·운영 및 교육사업

· 문화행사 관람 및 이용 등의 참여자는 여성이 많으나, 행사를 주최하는 단위의 행사지원이나 보조역할은 여성이고 주도적 역할이나 의사결정 구조에는 남성이 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남

5)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국별로 조례에 명시된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과 시책을 말함(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2019년 기준)

· 도서관 및 문화·예술·관광시설 이용도, 문화행사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참여도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음.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도서관, 문화·예술·관광시설 등의 이용에 여성의 참여율이 높음. 또한, 주중 및 주말 등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성별로 이용률 차이가 있음. 경제활동 시간 사용의 용이성, 경제력 상승, 동호회 활동 증가 등으로 주중 여성 및 어린이 방문(이용)율이 매우 높음

· 남성 중심의 예술작품 주제선정, 사회 주요인물 선정에서 관행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많음. 공공조형물 주제,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전통문화 및 역사 복원 등의 사업 추진 시 남성 중심의 역사관이나 인물, 주제선정 관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사회 주요 인물 선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어왔음

② 문화체육관광 인력양성 사업

·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여성이 많거나 성비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전공자의 경우에도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업예술활동 비중은 남성에 비해 적고 평균 수입도 적음

·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으로, 고용조건 및 근무환경, 일생활 양립 여건조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왔음. 이처럼 여성에게 불리한 근로여건 속에서 여성문화예술인은 저임금 노동구조와 경력단절 상황에 처하게 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콘텐츠 관련 젠더 이슈

- 대부분의 민영관광지가 제주의 역사·문화와 무관하게 단순 관람형 위주의 박물관 형태로 개발·운영되면서 제주의 특성에 대해 알리는데 미흡한 한편 공영관광지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반영하고 있는 위주로 개발·운영(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학회, 2019)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제주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를 자원화하는 연구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이에 대한 유통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제주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관련 연구들은 해양콘텐츠라는 개념으로 해녀유산에 대한 연구와 특정한 제주신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녀' 콘텐츠와 '설문대할망'이라는 신화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음. 아울러 젠더 관점의 지역역사문화자원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는 젠더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성을 제기함. 한편 기존에 2000년대 들어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을 중심으로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젠더 관점에서 서술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강경숙 외, 2015; 정여진 외, 2018)

제3장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개요

❍ 본 모니터링은 제주지역 관광지 콘텐츠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관광 분야의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되었음. 모니터링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개요>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기간	· 2019. 7월 ~ 2019. 10월(4개월)
모니터링 대상	· 제주지역 관광지의 전시물과 안내·홍보물 - 제주지역 공영관광지(22곳): 역사·문화자원형(12곳) 및 전시·박물관형 관광지(10곳) - 기타 관광지(6곳):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
모니터링 방법	·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전문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내용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 차별적 표현 및 비하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성별 대표성 불균형

❍ 모니터링 방법 및 대상

- 모니터링 방법: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대상은 '제주지역 관광지의 전시물과 안내·홍보물'로, 모니터링 대상지는 제주지역의 역사문화 및 젠더 이슈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총 28곳을 선정하였음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대상지>

역사문화자원형	전시·박물관형	기 타
항일기념관, 4.3평화공원,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항목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객주터, 제주목관아, 성읍민속마을, 서복전시관, 추사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감귤박물관, 세계자연유산센터, 국제평화센터,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박물관, 삼성혈, 혼인지, 러브랜드, 건강과성박물관

주: '기타'는 공영관광지는 아니지만, 성차별적인 이슈로 문제화된 적이 있거나 성(性) 또는 지역역사문화자원 등 젠더 이슈와 관련성이 큰 관광지임

❍ 모니터링 지표

-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지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점검 지표(여성가족부, 2019)'를 참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와 모니터링단 워크숍을 통해 지표를 마련하였음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지표>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및 점검 포인트
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은 '가족-돌봄', 남성은 '생계부양'의 역할 - 남성은 사회지도층,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 - 여성은 쇼핑,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②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가? - 여성은 순종적, 남성은 강인함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 ③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 가족 성원을 '부모+아들+딸'로 구성
2. 성 차별적 표현 및 비하	①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여성을 꽃으로 비유, 미망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망한다 등 - 남성에 대해 남자답지 못하게, 남자가 그것도 못해 등 ②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여성을 허영심 많고 의존적 존재로, 남성을 과중한 짐을 떠안고 바쁜 존재로 - 여성은 잘 몰라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 -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남성을 무능한 존재로 묘사 ③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몸매) 강조(성적 표현 강조)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①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 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행위를 단순한 흥밋거리로 표현
4. 성별 대표성 불균형	① 특정 성별 또는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 홍보대상자 또는 수혜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 또는 특정 성별만 표현 - 지역주민의 경험을 다루는 경우임에도 특정 연령 및 성별을 중심으로 표현

2.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모니터링 결과를 지표별로 분석한 결과, 성차별적인 콘텐츠에 해당하는 사례는 전체 35개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과 '성별 대표성 불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성차별적 관광 콘텐츠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사례는 '지역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학습용 콘텐츠'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남(예: 제주어학습)
-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하고 있는 사례는 '체험 및 공모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나타남(예: '항일기념 만세체험', '갈옷입기체험', 가족 대상 공모 프로그램)
-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사례' 등은 '성적 행위 및 담론 관련 콘텐츠'에서 나타남(예: 민영관광지인 '러브랜드'와 '건강

과성박물관'의 콘텐츠)

-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 사례'는 '김만덕, 해녀, 자청비(여성신화) 등 여성 관련 콘텐츠'에서 나타남
- '성별 대표성 불균형 사례'는 '기관 홍보 리플렛 및 책자, 게시판 등의 인물 이미지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콘텐츠는 기관의 특성 및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성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평화와 환경, 항일운동, 4·3사건 등 역사 관련 관광지는 주로 중년층 이상의 남성 인물 중심 콘텐츠가 많았으며, 김만덕기념관, 문화프로그램 등의 경우는 여성 중심 콘텐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 · 제주여성역사문화 관련 콘텐츠: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전반에 남성 중심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하면, 제주 여성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제주 여성은 어머니 역할로 재현되는 경향이 강하였음
  - · 역사문화해설: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설사들의 해설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남. 전반적으로 지역여성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해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설의 근거가 빈약하고 자의적인 해설이 이루어지거나 성차별적인 해설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해설사의 해설 역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광지별로 살펴보면, 모니터링 대상 관광지 28곳 중 성차별적 콘텐츠가 발견된 관광지가 16곳(57%)으로 절반 이상의 관광지에 성차별적인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개입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공영관광지보다 민영 또는 기타 운영 주체가 다른 관광지에서 성차별 콘텐츠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나타나, 공영관광지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다양한 제주지역 관광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연번	관광지명	성차별적 콘텐츠 유형(개)	관광지유형	관리주체
1	국제평화센터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전시·박물관형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2	제주도립미술관		전시·박물관형	도 제주도립미술관
3	민속자연사박물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2)	전시·박물관형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4	제주돌문화공원		역사문화자원형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연번	관광지명	성차별적 콘텐츠 유형(개)	관광지유형	관리주체
5	제주해녀박물관		역사문화자원형	도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6	항일기념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1) · 성별 대표성 불균형(2)	역사문화자원형	도 보훈청
7	현대미술관		전시 · 박물관형	도 도립미술관
8	김창열미술관		전시 · 박물관형	도 도립미술관
9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 성 차별적 표현/비하(1)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전시 · 박물관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0	제주목관아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1	삼양동선사유적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2	항몽유적지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3	제주추사관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4	제주4·3평화공원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2)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역사문화자원형	도 특별자치행정국 4 · 3지원과(민간위탁)
15	김만덕기념관	· 성 차별적 표현/비하(1)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역사문화자원형	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 가족청소년과(민간위탁)
16	김만덕객주		역사문화자원형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17	성읍민속마을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8	이중섭미술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1)	전시 · 박물관형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19	기당미술관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전시 · 박물관형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20	서복전시관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역사문화자원형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21	서귀포감귤박물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1)	전시 · 박물관형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관리소
22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전시 · 박물관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23	러브랜드	· 성 차별적 표현/비하(1)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1)	기타	민간
24	건강과성박물관	· 성 차별적 표현/비하(2)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3)	기타	민간
25	삼성혈		기타	삼성사재단
26	혼인지		기타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27	국립제주박물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4)	기타	국립제주박물관 (문광부)
28	교육박물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3) · 성 차별적 표현/비하(2)	기타	도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시 별빛누리공원은 내부 시설 개선 공사로 대상에서 제외
** 관광지 관리주체(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9년 10월. 현재)

제4장 결론.

1. 주요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 지역 문화·관광정책 분야 성평등 네트워크 및 젠더 이슈 발굴

- 본 연구는 관련 정책 및 문헌 분석과 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문화·관광정책분야 및 지역역사문화 관련 분야의 젠더 이슈를 살펴보고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음. 주요 성과로는 제주지역 문화·관광분야의 성평등 정책개선 필요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제주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 등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인지적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되었음
- 아울러 본 연구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제주지역의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성평등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련 분야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성평등 이슈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임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점검 체계 강화

- 개발 방향: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전시물 및 홍보물에 대한 기획 및 이행 과정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긍정성이 가미된 지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구체성, 명확성, 긍정성)

- 주요 활용 기관 및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문화정책과, 성평등정책관 등 관계 공무원, 용역 관계자, 자문위원 및 모니터링단 등 민간 전문가
  -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및 도에 등록된 미술관 및 박물관(관계자)
  - · 문화관광해설사(관광가이드) 및 학예사 등

- 지표 내용
  -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점검 지표는 4개 영역, 5개 지표로 구성됨
  - · 기존 모니터링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콘텐츠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 2개의 지표를 개발하였고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 각 영역에서 1개의 지표를 개발함

<기존 모니터링 지표와 개선 지표 비교>

기존 모니터링 지표	개선 지표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가? -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 지역역사문화 관련 및 기타 교육·홍보용 콘텐츠 제작 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가? • 체험 및 공모프로그램 기획·홍보 시, 다양한 가족과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 성 차별적 표현/비하 -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인물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가?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 전시물 및 홍보물에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 성별 대표성 불균형 - 특정 성별 또는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 기관 홍보물 및 게시물 제작 시, 인물 이미지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 문화·관광정책 관계자의 성평등 역량 강화 및 기초 연구 강화

- 제주지역 문화·관광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주요 주체로서 콘텐츠 기획자(담당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와 자문위원, 문화관광해설사(관광가이드) 등 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이러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성평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실제 각 관광지의 문화관광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여성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해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한 성차별적인 해설 사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 공유를 통하여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과정에 성인지 교과목 신설·추진이 이루어짐
- 끝으로 문화·관광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지역역사문화자원과 콘텐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 여성과 젠더 관점의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성평등 정책 개선안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제고를 위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제도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권고제'를 접목하여 실시함으로써 각 제도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정책권고제'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이 추진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해 추진

방법, 추진 내용, 관련 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개선), 이행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임(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향후 본 연구에서 마련된 정책 개선안들을 '성평등정책권고제'를 활용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갈 것을 제안함.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성평등 정책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적 관광 콘텐츠 사전·이행점검체계 구축

- 추진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사전 점검(자체점검)
  - · 점검 주체: 사업 담당공무원, 학예사 등
  - ※ 담당공무원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용역 위탁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성평등 관광 콘텐츠 자체점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단품 콘텐츠 제작 시에는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여성가족부, 2019)'를 활용할 수 있음

  - · 점검 내용 및 방식: 전시물 및 홍보물 등 관광 콘텐츠 기획 시 자체점검 실시

<성평등 관광 콘텐츠 기획을 위한 사전 자체점검표>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1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① 지역역사문화 관련 및 기타 교육·홍보용 콘텐츠 제작 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가? [예 시] ▸ (주역할)여성은 요리, 청소, 육아 등 가사와 육아 돌봄 역할을 하는 사람, 남성은 직업 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사람 ▸ (직업)남성은 관리직, 사회지도층 등 주요 역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 ▸ (취미)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지역역사문화) 남성의 경험은 중요하고 비중 있게, 여성의 경험은 드러나지 않거나 부수적으로 재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② 체험 및 공모프로그램 기획·홍보 시, 다양한 가족과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예 시] ▸ 가족이나 관람객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로 구성된 이미지 지양, 다양한 세대, 가족, 체형 등을 고려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2 성차별적 표현 및 비하	① 인물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가? [예 시]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쭉쭉빵빵 등, 뚱뚱한 몸을 희화화, 또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하는 표현 ▸ 해당 인물 및 상황과 연관성이 없으면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 등장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3 폭력에 대한	① 전시물 및 홍보물에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 없음 □ 있음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왜곡된 시각	[예 시] ▸ 가정-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성매매 등 젠더폭력을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이나 사소한 문제로 표현	□ 모름	□ 컨설팅 요청
4 성별 대표성 불균형	① 기관 홍보물 및 게시물 제작 시, 인물 이미지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예 시] ▸ 돌봄 및 상담 제공자, 판매 홍보, 문화프로그램 홍보에 여성을 주로 표현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및 스포츠, 게임 홍보에는 남성을 표현 ▸ 노동, 과학, 외교, 정치, 평화, 환경, 역사, 문화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전시 또는 홍보하면서 특정 성별로만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 이행 점검(모니터링단 점검)
  - · 점검 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여성친화도시 담당공무원 및 모니터링단 등)
  - · 점검 내용 및 방식: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과 전문가 매칭을 통한 관광 콘텐츠 성평등 이행 모니터링 추진(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평가 시, 성인지적 평가 지표 반영

- 관련 조례 개정
  - · 추진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 추진 내용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개정

주요 조항	개선 내용
·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영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 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성별 균형 참여>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광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 특성 반영>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시 성별 특성 반영

- 평가 방법 및 내용 개선

  · 추진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관광협회

  · 개선 내용

  ① 관광지 평가를 위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련 문항 반영

기존 만족도 조사의 주요 내용	보완 내용
· 도내 공영관광지 방문경험 관련 (방문횟수, 동행인, 이용 교통수단 등) · 도내 공영관광지 충성도/만족도 관련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향 등) · 도내 공영관광지 방문 만족도 관련 (매력·흥미, 독특성, 볼거리, 즐길 거리 관련) · 기타 관광지 개선 의견 사항 및 응답자 일반 현황 등	전시물(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성 차별적인 내용 또는 특정 성을 비하하는 내용 여부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 지표 참고

②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시, 성평등 개선 사례 가점 부여 및 평가 항목 반영

기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관련 평가 항목	보완 내용
· 운영 프로그램의 매력도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체 시책 추진 등	성인지적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체 시책 추진 여부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 지표 참고

❍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성인지적 점검 기반 마련

- 추진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추진 내용 및 방법: 성인지적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 개정

주요 조항	개선 내용
· 제5조(평가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인증을 신청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평가인증 신청 및 절차,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 특성 반영>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성별 특성 반영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전문가 2.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문화·관광정책분야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성평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문화·관광정책 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성인지교육 과정 신설 및 강화
  - · 추진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인재개발원 등
  - · 추진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동기본조례 개정안 제18조(성인지교육) 마련 중
  - · 주요 내용: 문화·관광정책 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과정 신설

<문화관광정책 분야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 성인지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시간)	대상	시기
일반과정 (4시간)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2h) - 성별고정관념 찾기, 젠더 감수성 훈련 • 성인지정책과 문화·관광정책의 이해(2h)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인지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등 - 정책 개선 사례 등	문화·관광분야 전 직급 공무원 ·관계자	연중
담당자과정 (6시간)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2h) - 성별고정관념 찾기, 젠더 감수성 훈련 • 성인지정책과 문화·관광정책의 이해(2h)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인지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등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작성 실습(2h)	문화·관광분야 성인지정책 담당자	상반기 (성인지정책 대상 과제선정 후, 과제 이행 전)

-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보수교육과정 개선
  - · 추진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인재개발원 등
  - · 추진 근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제19조(양성평등교육) 마련 중
  - · 개선 내용: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 및 보수 과정에 성인지적 교과목(성인지관점의 이해/ 성인지적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관광객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심리 이해 등) 신설
    - ※ 강의 콘텐츠: 제주4·3사건, 제주 여성의 독립운동, 제주의 문화 등 역사적 사건 및 지역 문화관련 지역 여성들의 경험과 인물의 역할, 성인지적 관점의 설문대 및 자청비 등 여성신화와 다양한 설화(예: 벽랑국 세공주 스토리 발굴·재조명)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보수교육과정 개선안>

기존 양성과정		성인지 교과목 신설
신규(100시간)	보수(16~32시간)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 해설안내기법 4.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5. 컴퓨터 6. 안정관리 및 응급처치 7. 수화 8.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9.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1. 관광 트랜드와 문화해설사의 역할 2.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3. 해당관광지에 대한 전문지식 4. 관광객 특성 이해 - 관광객 유형별, 연령별 특성 및 심리 5. 지역 문화관광자원 - 지역문화재, 자연환경, 종교, 미술, 음식, 축제, 음악 등 6. 해설안내기법 - 해설시연(스피치기술,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작성 7. 해설서비스를 위한 SNS 활용 등 8. 기본소양교육 9. 이미지메이킹(복장, 용모 등 자기관리)	- 성인지관점의 이해 - 성인지적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 - 관광객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심리 이해

❍ 성인지적 관점의 지역역사문화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활성화

- 제주 여성 및 젠더 연구와 이에 기반 한 지역여성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작업을 위한 주요 연구 주제 등 향후 과제
  - · 제주4·3사건, 해녀, 여성항일운동, 김만덕, 지역발전과 여성 등 제주의 역사문화, 여성인물 등에 대한 젠더 관점의 재해석 작업
  - · 신화, 유적지, 의례 및 축제 등 지역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및 재해석 작업
  - · 지역여성역사문화연구의 콘텐츠화를 위한 학계, 연구기관, 행정, 관광지 및 박물관, 문화단체, 기업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및 홍보 방안 마련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민선 7기 공약사업) 설치를 위한 로드맵 마련
  - · 주요 기능: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특화된 연구 방향과 주제 개발 및 여성연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허브로서의 역할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 내용과 범위 ····· 4
   가. 연구 내용 ····· 4
   나. 개념 정의 및 연구 범위 ····· 5
3. 연구 방법과 절차 ····· 6
   가. 연구 방법 ····· 6
   나. 연구 절차 ····· 8

제2장 제주지역 관광정책 현황 및 젠더 이슈 분석

1. 제주지역 관광정책의 추진 배경 및 변화 ····· 11
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 현황 ····· 13
   가. 법적 기반 ····· 13
   나. 추진체계 ····· 19
   다. 기본계획 및 시책 ····· 23
3. 제주지역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 25
   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정책 분야 젠더 이슈 ····· 25
   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콘텐츠 관련 젠더 이슈 ····· 27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31

제3장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개요 ····· 35
   가. 모니터링 방법 및 대상 ····· 35
   나. 모니터링 지표 ····· 36

2.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 37
가.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37
나. 성차별적 표현 및 비하 ····· 50
다.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56
라. 성별 대표성 불균형 ····· 60
마. 기타 ····· 67
3.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 73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75

제4장 결 론

1. 주요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 81
가. 지역 문화·관광정책 분야 성평등 네트워크 및 젠더 이슈 발굴 ····· 81
나.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점검 체계 강화 ····· 81
다. 문화・관광정책 관계자의 성평등 역량 강화 및 기초 연구 강화 ····· 83
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성평등 정책 개선안 ····· 83
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적 관광 콘텐츠 사전・이행점검체계 구축 ····· 84
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평가 시, 성인지적 평가 지표 반영 ····· 87
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성인지적 점검 기반 마련 ····· 89
라. 문화・관광정책분야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성평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91
마. 성인지적 관점의 지역역사문화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활성화 ····· 93

참고문헌 ····· **95**

부록.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 **97**

표 목 차

<표 1-1> 제주지역의 주요 공영관광지 현황 ····· 5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행정조직의 변천 과정 ····· 12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 관련 조례 ····· 13
<표 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2011) ····· 14
<표 2-4> 역사문화자원형 관련 조례 ····· 16
<표 2-5> 전시박물관형 관련 조례 ····· 17
<표 2-6> 기타 관광지의 조례 ····· 18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 관련 조례와 정책 및 시책 ····· 25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정책분야 성인지정책 대상 사업 ····· 25
<표 2-9> 제주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관련 최근 연구 현황 ····· 28
<표 2-10> 제주도에서 발행한 제주여성 재조명 관련 목록 ····· 30
<표 3-1>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개요 ····· 35
<표 3-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대상지 ····· 35
<표 3-3>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지표 ····· 36
<표 3-4>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 38
<표 3-5>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 46
<표 3-6>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하고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 47
<표 3-7>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 50
<표 3-8>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 52
<표 3-9>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 강조/외모 차별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 54
<표 3-10>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 57
<표 3-11> 성별 대표성 불균형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 60
<표 3-12> 제주 여성의 모성과 희생 주제의 콘텐츠 ····· 68
<표 3-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 74

<표 4-1> 기존 모니터링 지표와 개선 지표 비교 ····· 82
<표 4-2> 성평등 관광 콘텐츠 기획을 위한 사전 자체점검표 ····· 84
<표 4-3> 성평등 관광 콘텐츠 이행 모니터링 점검표 ····· 86
<표 4-4> 문화·관광정책 분야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 성인지교육 과정 ····· 92
<표 4-5>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보수교육과정 개선안 ····· 9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 8
<그림 2-1> 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추진체계 ····· 19
<그림 2-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행정조직(관광국) ····· 20
<그림 2-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직도 ····· 21
<그림 2-4> 환경보전국 조직도 ····· 21
<그림 2-5> 제주관광공사 조직도 ····· 22
<그림 2-6> 제주관광협회 조직도 ····· 22
<그림 2-7> 제4차 국토종합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 23
<그림 2-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 24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3.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한국사회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에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임. 2016년에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평가조례」 개정(2017.12.29.)을 통해 지자체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됨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정책의 성차별 요인을 점검하여 성평등 정책 개선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책평가제도로, 200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김둘순 외, 2016)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특정성별영향평가란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중인 법령(조례·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상정책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책개선 반영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김둘순 외, 2017)임

○ 이와 같이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모범적인 정책평가 사례 및 정책개선 사례를 축적하고 정책 규모가 크며 중장기적 추진 정책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여성가족부, 2006)가 있음

○ 타 지역의 경우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1]가 많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내 최대 관광지이자 고유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정책 분야를 선정[2]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제주지역은 고유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된 곳으로, 제주의 수많은 관광지는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제주의 관광정책과 더 나아가 제주사회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주의 관광지, 특히 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광광지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반영한 콘텐츠 위주로 개발·운영(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학회, 2019)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역사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3](제주

1)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이 시행된 이래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이 매년 꾸준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옴(김둘순 외, 2017)

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확정(2019.3.21)

3) 휴가 및 비즈니스 등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방문관광객 조사결과(2017)에 따르면 '제주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06점(여성 4.11점, 남성 4.00점), '재방문 의향'은 4.18점(여성 '4.26점', 남성 '4.09점', '관광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87점(여성 '3.90점', 남성 '3.83점')으로,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2017)를 살펴보면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앞서 제주지역 관광지의 성차별 사례가 언론을 통해 가시화[4])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지금까지 제주지역 관광지 등 관광분야의 젠더 이슈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관광 분야의 젠더 이슈 중 관광지에서 생산·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평등한 관광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됨

2. 연구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주지역 관광정책 현황 및 젠더 이슈 분석

○ 제주지역 관광정책의 배경 및 변화

○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의 추진기반 및 정책 현황

- 법적 기반, 추진체계, 관련 정책 현황 등

○ 제주지역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분석

- 제주 성인지정책 대상사업 중 문화·관광정책 분야 사업의 젠더 이슈 분석
- 지역역사문화 자원 및 관광지 콘텐츠 관련 젠더 이슈 분석

2) 관광 콘텐츠 성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관광 콘텐츠 성평등 모니터링 방향 및 지표 개발

○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 의견 제시

○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 의견 제시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 관련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라인 개발 및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마련

---

4) 인사이트(2018.9.8.). “여성 팬티 훔쳐보기”... 제주 러브랜드 놀러갔다가 충격 받은 관람객들.

나. 개념 정의 및 연구 범위

○ 관광정책은 관광과 정책의 복합어로서 관광의 의미와 범위에 따라 그 개념 정립도 다를 수 있음.[5] 관광과 정책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결국 관광정책(tourism policy)이란 관광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할 수 있음(정정길 외, 2007)

○ 본 연구에서의 '관광 콘텐츠'[6]는 관광지에서 보유하고 제작한 것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유무형의 재화들로 정의함.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관광 콘텐츠'의 범위는 '제주지역 관광지의 전시물과 홍보물'로, 구체적으로 제주지역의 역사문화 및 젠더 이슈와의 관련성이 높은 관광지에 한정함.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공영관광지 중 역사·문화자원 및 전시·박물관형 관광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공영관광지'의 개념과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2011.8.17. 제정)」에 따름. 이에 근거하여 공영관광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제주지역 공영관광지는 총 60개소로, 주요 공영관광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음

〈표 1-1〉 제주지역의 주요 공영관광지 현황[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목관아지, 항목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그 밖에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5) 관광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경제·심리·사회·문화 현상으로 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현상이고, 인간·교통·자원의 매력성과 서비스 및 시설물·정보망 등 5개 요소로 구성된 한 개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Gunn, 1988; 김사헌, 2007).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결국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정책은 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 구조 및 정치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Self, 1983; 이연택, 2003). 종합하면,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할 수 있음(정정길 외, 2007)

6)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체·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를 의미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문화산업진흥기본법)를 말함. 그 외에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함(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관광」이라 함은 예술성, 여가성, 대중성 및 오락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을 말함(경기도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에 관한 조례, 2017). 「문화관광콘텐츠」라 함은 문화관광적 요소가 구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함(경기도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에 관한 조례, 2017)

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대상지에 대해서는 제4장의 모니터링 개요를 참고 바람

3. 연구 방법과 절차

가.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 주요 관광지의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병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헌 연구

○ 선행 특정성별영향평가 관련 연구 검토

○ 문화·관광 분야(관광 콘텐츠) 정책자료 및 연구 검토

2) 주요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 제주지역 역사문화 및 젠더 이슈와 관련된 관광지(28곳)의 전시물과 안내·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중 역사·문화자원 및 전시·박물관형 관광지 22곳
- 젠더 이슈와 관련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된 기타 관광지 6곳

○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턴트로 구성된 모니터링단(4인)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과정 점검 및 결과 평가 실시

3)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 문화·관광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연구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의견 수렴

○ 학계, NGO, 행정 및 공공기관 등 영역별 문화·관광분야 관계자 간담회(FGI) 및 공무원 간담회를 통한 해당분야 젠더 이슈 발굴 및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전문가 및 관계자 FGI(2회)

○ 1차 FGI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 제주지역 관광(콘텐츠) 분야의 젠더 이슈 발굴 및 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관광정책 관계자 네트워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9. 9. 6(금). 14:00~16: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3별관 4층 회의실

구 분	주요 내용
참석자	▶ 연구진 및 외부전문가(관광공사, 관광협회, 제주대학교 관계자 등) 7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제주지역 관광분야의 젠더 이슈 및 과제 발굴 - 축제, 승마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 관광 인프라 등 ▶ 제주지역 관광분야 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 논의 - 관광 콘텐츠 성평등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방안 · 평가 지표 및 가이드라인의 개선 필요: 구체성, 명확성, 긍정성 · 공영관광지 평가 시 개별관광객 만족도조사에 지표 반영 · 평가 방법에 있어 정성평가 필요 - 성인지적 지역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용 방안 · 문화해설사 대상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지적 해설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제주여성(역사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확산 필요 · 역사문화 원형에 관현 연구 필요

○ 2차 FGI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 제주지역 (역사문화자원) 관광 콘텐츠 관련 젠더 이슈 발굴 및 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지역역사문화 관련 관계자 네트워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9. 10. 21(월). 15:00~17: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소회의실
참석자	▶ 연구진 및 외부전문가(지역역사문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1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관광 콘텐츠 성평등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과제 -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를 바라보는 관점: 다양성의 관점이 중요 · 역사적인 제주여성의 활동을 가시화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 · 폭넓은 예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거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반영한 전시물과 체험 프로그램(예: 가족 구성원의 이미지- 다양한 구성원) - 미술관의 여성 누드 전시물을 보는 관점 · 예술작품으로써 기획 및 전시 의도를 제시하고, 해설사들의 해설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 사전 모니터링 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단계의 개입 필요 (예: 현재 추진 중인 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전시관, 관광객의 소리함 배치 등) · 느슨한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시 ▶ 성인지적 지역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용 방안 - 해설사의 역할 중요, 역량 강화 필요 · 해설사 중 전문가와 일자리를 구분하여 관리 필요 · 해설사의 성인지, 평화, 인권 등 감수성이 중요 · 문화해설사 대상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여성학 전공 강사진 구성) 및 성인지적 해설 자료집(여성 누드 작품, 지역 여성역사문화 관련) 개발·지원 - 지역역사문화 관련 대안적인 연구와 관점 제시 · 역사적인 제주여성의 활동을 가시화하고 저변을 확대를 통한 기존 (남성 중심적) 관점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 - 역사문화 원형에 관한 연구 및 개선 필요 · 기초 연구조사자료의 부족, 관광 현장이 바뀌려면 기초 자료가 개선되어야 함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활용 연구 등 통합적인 개선 필요

□ 공무원 간담회(3회)

구 분	내 용
1차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9.7.15(월)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참 석 자: 연구진 및 관광정책팀(팀장·주무관) ▸ 주요내용 - 특성별영향평가 절차 안내 및 성인지적 관광지 모니터링를 위한 협업 사항 논의
2차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9.9.19(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참 석 자: 연구진 및 관광정책팀(팀장) ▸ 주요내용: 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3차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9.9.30.(월)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참 석 자: 연구진, 성평등정책관, 관관정책과 ▸ 주요내용: 중간보고(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나. 연구 절차

○ 이상의 연구 수행 방법과 절차를 도표화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 연구 검토
3단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2회: '19. 6.27/11.13) • 도내 관계 전문가 FGI(2회: '19. 9.6/10.21) - 관광 및 지역역사문화 관련 민관학 전문가 10여 사례 • 공무원 간담회(도 관광정책과, 성평등정책관: '19. 7.15/9.19/9.30)
4단계	주요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	•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19. 7월 ~ 10월) -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 전문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28개소) - 모니터링 결과 지표별 분석 및 개선안 도출
5단계	분석·집필	➪	• 최종 분석 및 보고서 집필 • 보고서 평가 및 최종 보고

제 2 장

제주지역 관광정책 현황 및 젠더 이슈 분석

1. 제주지역 관광정책 추진 배경 및 변화
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 현황
3. 제주지역 문화 · 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 제주지역 관광정책의 추진 배경 및 변화

○ 제주지역 관광정책은 지역개발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 1차, 2차 산업 순으로 발달한 구조로, 1차 산업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광공업 부문이 점증하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산업구조와는 상이한 경제 구조를 특징으로 함(김진영, 1995)

○ 이러한 산업구조는 1960년대 지역개발이 계기가 되었는데,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국가주도에 의해 1960년대 목축업, 감귤산업 등 1차 산업의 상업화를 시작으로 1970년대 이후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난 50년 동안의 제주관광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정승훈・송재호, 2013)

- 1950~1960년대(제주관광의 태동기): 교통 및 숙박시설 등 관광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기 시작
- 1970년대(제주관광의 본격화 시기):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과 '중문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국가주도의 제주관광개발이 본격화된 시기
- 1980년대(대중관광의 초기단계): 우리나라 대중관광의 초기 단계로서 제주관광이 본격화된 시기(효도관광 및 신혼여행지).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표선 제주민속촌 및 제주조각공원 등 관광지가 등장하기 시작함
- 19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1991)」에 근거하여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됨
- 2000년대: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함
- 2010년대: 2010년~2023년까지 제주관광진흥계획 T/F팀이 꾸려지고, 최근 2019년 1월까지 3차 관광진흥계획이 발간됨(제3차 제주관광진흥계획, 2019)

○ 이와 같은 제주의 지역개발과 관광역사의 변화에 따른 관광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송재호 외, 2000)

- 1960년대: 제주도 관광행정의 시작은 1964년 제주도의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관광운수과가 총무국에 신설된 이후부터임
- 1970년대: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을 전담시키기 위한 기구로 관광국 신설됨
- 1980년대: 1981년 개발국과 관광국이 관광개발국으로 통폐합됨
- 1990년대: 1991년 관광개발국이 교통관광국으로, 1994년 교통관광국이 관광문화국으로 명칭 변경됨
- 2000년: 관광문화국 유지됨
- 2015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부, 관광부, 스포츠부처가 통합된 하나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조직 형태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함(오상훈・박운정, 2015)
- 2019년 현재: 관광국. 문화체육과 관광이 분리됨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행정조직의 변천 과정

연 도	내 용
1964년	· 1964년 12월 1일: 총무국에 관광운수과
1968년	· 총무국 소속 관광운수과 → 개발국 소속 관광운수과로 소속변경
1972년	· 개발국 소속 관광운수과 → 관광과로 명칭변경
1974년	· 개발국 소속 관광과 → 관광운수과로 명칭변경
1978년	· 관광국 신설 · 개발국 소속 관광운수과 → 관광국 소속 관광과, 운수과로 분리 · 개발국 관광운수과 진흥계, 선전계 → 관광국 관광과로 소속변경 · 관광국 소속 관광과에 시설계 신설
1981년	· 개발국 + 관광국 → 관광개발국으로 통폐합 · 관광국 소속 관광과, 운수과 → 관광개발국으로 소속변경
1987년	· 관광개발국 개발담당관 및 지역계획담당관 신설
1991년	· 관광개발국 → 교통관광국으로 명칭변경
1993년	· 교통관광국 관광과 관광지도계 신설 · 교통관광국 관광과 진흥계 → 관광진흥계로 명칭변경
1994년	· 교통관광국 → 관광문화국으로 명칭변경 · 관광문화국 관광과 투자유치계 신설 · 관광문화국 관광과 선전계 → 관광홍보계로 명칭변경
1996년	· 관광문화국에 관광개발과 신설 ·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에 관광상품개발계 신설 · 관광문화국 관광개발과에 관광개발계 신설 · 관광문화국 관광과 → 관광진흥과로 명칭변경 · 관광문화국 관광과 투자유치계 → 관광개발과로 소속변경 · 관광문화국 관광과 관광시설계 → 관광개발과로 소속변경
1998년	·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 관광상품개발계 폐지 ·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 관광홍보계 → 관광유치홍보담당으로 명칭변경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관광문화국으로 소속변경 · 통상협력과 교류협력담당 → 관광진흥과로 소속변경
2000년	·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 교류협력담당 → 투자진흥관로 소속변경 ·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에 해외마케팅담당 신설
2015년	· 관광문화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명칭변경 · 카지노감독과 신설
2019년	· 문화정책과와 스포츠산업과 분리되어 관광국으로 명칭변경 · 1개국과 3개과 10개 담당으로 구성

자료 : 제주도, 「행정조직50년사」, 1997. 제주도, 「도정백서('98~'99)」, 1999. 제주연구원,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연구모형개발, 2000. 재구성.

○ 제주 관광이 태동한 1960년대부터 지난 50년~60년 동안의 제주사회의 변화는 밭농사적인 체제에서 바로 산업화 체제로 건너뛰는 변화(조혜정, 1988)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은 개발주의와 성장주의가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주목과 가치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한 정책, 학문,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 현황

○ 본 연구는 관광정책 중에서도 관광지 및 박물관 등에서 보유·제작·관리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다음은 이와 관련한 정책적 기반 및 현황을 살펴봄

가. 법적 기반

1) 관광 콘텐츠 관련 조례

○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법적 추진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조례(20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200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임. 위의 조례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 관련 조례

관련 조례명	주요 내용
문화콘텐츠산업	(제정) 2014-04-21 조례 제 1185호 제정 목적, 정의,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직무 내용을 포함
관광진흥	(제정) 2009-10-07 조례 제 528호 제정 목적, 정의, 사업의 종류, 사업등록신청,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평정위원회 구성, 기능과 역할, 관광통계, 관광진흥계획수립,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제정) 2015-07-08 조례 제 1303호 제정 목적, 정의, 책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내용 포함 -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영관광지 관련 조례

(1) 공영관광지 평가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의 법적 기반은 201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와 함께 마련됨

〈표 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2011)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이 조례에 따른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제주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2. 제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3. 서귀포시가 운영·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 그 밖에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영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

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관광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11조(인센티브)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

2. 국내외연수에 우선권 부여

3. 각종 포상 우선권 부여

(2) 유형별 개별 관광지 조례

○ 공영관광지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조례를 살펴봄

○ 역사문화자원형은 대부분 개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나 개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콘텐츠 특성에 따라 포괄적인 범위의 상위 조례로 운영됨

○ 위의 내용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반영하여 운영함

○ 전시박물관형의 자원 역시 각 콘텐츠마다 조례 제정이 대부분 되어 있으나,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중 이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예를 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우는 따로 각 공영자원에 대한 조례를 갖추지 않고「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근거하여 운영하는 형태임

□ 역사문화자원형

○ 역사문화자원형 콘텐츠 관련 조례들을 살펴본 결과를 성인지적 관점과 모니터링 지표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에 대한 내용 여부

② 성별 대표성의 불균형 여부

③ 취약계층의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삽입 여부

○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성별 대표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회의 참석 과반수출석에 대한 성비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이 아래의 역사문화자원형 관련 조례 ①, ③, ④, ⑤, ⑧, ⑨에서 확인됨

○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즉, 유아 동반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모차, 혹은 몸이 불편한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보유 등에 관한 내용이 아래의 역사문화자원형 관련 조례 ①, ③, ⑫에서 명시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형 콘텐츠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회 성비 명시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확인됨. 위의 내용은 다음의 역사문화자원형 관련 조례와 같음

〈표 2-4〉 역사문화자원형 관련 조례

관광지명	조 례	성인지관점 필요
① 김만덕 기념관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4-12-31] ·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가족청소년과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여부
② 김만덕 객주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6-01-11] ·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정책과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여부
③ 돌문화공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 : 2009-07-08] · 소관부서: 돌문화공원관리소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여부
④ 제주목관아	· 조례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름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⑤ 삼양동선사유적지	· 조례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름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⑥ 성읍민속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 2016-03-16] ·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위의 기준 내용이 조례에 명시 안 됨
⑦ 서복전시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8-01-09] ·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정책과	위의 기준 내용이 조례에 명시 안 됨
⑧ 추사관	· 조례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따름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⑨ 4.3평화공원	· 제주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4-02] ·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 4.3지원과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⑩ 항몽유적지	·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조례 [제정 : 2019-07-10] ·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위의 기준 내용이 조례에 명시 안 됨
⑪ 항일기념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6-10-11] · 소관부서: 보훈청	위의 기준 내용이 조례에 명시 안 됨
⑫ 해녀박물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8-03-05] ·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 해녀문화유산과	· 위원회 구성없음 · 편의시설 여부

□ 전시박물관형

○ 전시박물관형 콘텐츠 관련 조례들을 살펴본 결과를 성인지적 관점과 모니터링 지표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에 대한 내용 여부

② 성별 대표성의 불균형 여부

③ 취약계층의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삽입 여부

○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성별 대표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회의 참석 과반수출석에 대한 성비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이 아래의 전시박물관형 관련 조례 ③, ④, ⑤, ⑦, ⑨, ⑩ 에서 확인됨

○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즉, 유아 동반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모차, 혹은 몸이 불편한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보유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음이 아래의 전시박물관형 관련 조례 ①에서 확인됨

○ 그 밖의 전시박물관형 콘텐츠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회 성비 명시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확인됨. 위의 내용은 아래의 전시박물관형 관련 조례와 같음

〈표 2-5〉 전시박물관형 관련 조례

관광지명	조 례	성인지관점 필요
① 감귤박물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06-11-29] ·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 감귤진흥과	· 위원회 구성-상위법 · 편의시설 여부
② 국제평화센터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0-06-29] ·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 위의 기준 내용이 조례에 명시 안 됨
③ 기당미술관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 2013-07-26] ·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④ 김창열미술관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 2013-07-26] ·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⑤ 도립미술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06-10-11] ·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⑥ 민속자연사박물관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2007-04-04] · 소관부서: 민속자연사박물관	· 위원회 구성-상위법 · 편의시설 여부
⑦ 이중섭미술관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 2013-07-26] ·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⑧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2007-01-08] · 소관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 위의 기준 내용이 조례에 명시 안 됨

관광지명	조 례	성인지관점 필요
⑨ 세계자연유산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01-12] ·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⑩ 현대미술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06-10-11] ·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 기타 관광지[8)]

○ 기타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6개의 기타 관광지도 다음의 성인지적 관점과 모니터링 지표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에 대한 내용 여부

② 성별 대표성의 불균형 여부

③ 취약계층의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삽입 여부

○ 기타 관광지의 경우는 혼인지와 삼성혈을 제외한 4개의 관광지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를 따르고 있어서 위의 공영관광지에서 나타난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이 확인됨. 위의 내용은 아래의 기타 젠더 이슈 및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관광지의 조례와 같음

〈표 2-6〉 기타 관광지의 조례

관광지명	조 례	성인지관점 필요
① 건강과 성박물관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따름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② 국립제주박물관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따름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③ 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제75호)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따름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④ 러브랜드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따름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⑤ 삼성혈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따름	· 위원회구성비 · 회의참여 · 편의시설 내용 없음
⑥ 혼인지	·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 2016-05-13] ·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 주민협의체 구성비 · 편의시설 내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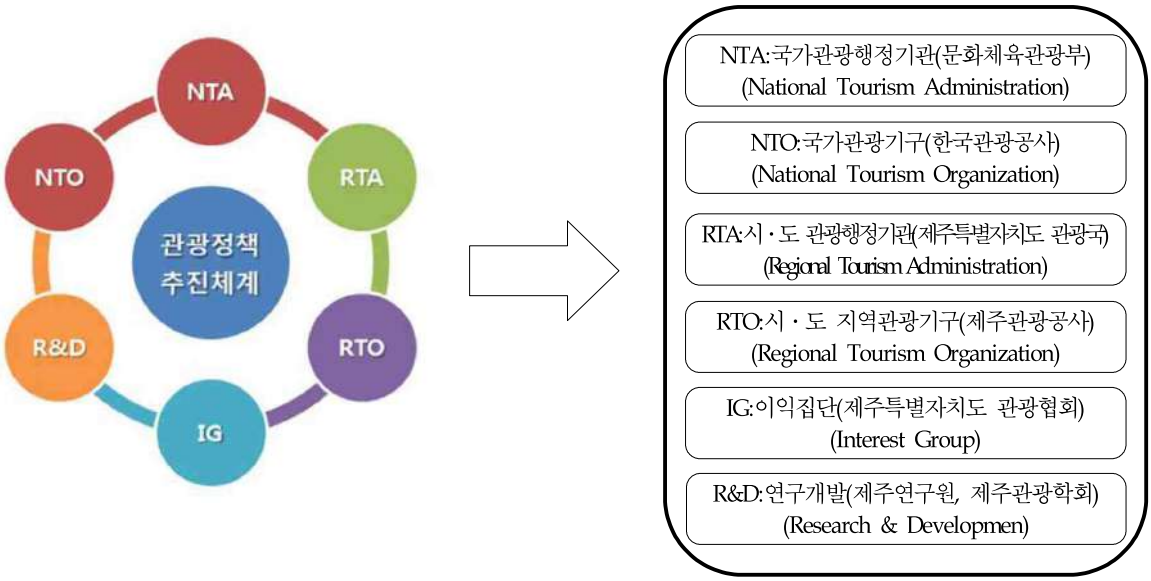
8)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니터링 대상지로, 공영관광지 이외에 운영 주체가 다른 관광지 중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박물관, 삼성혈, 혼인지, 러브랜드, 건강과성박물관 등을 의미함

나. 추진체계

1) 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 추진체계

○ 한국의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 협력하는 중앙정부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광국을 중심으로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 등의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음.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행정조직은 다음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추진체계



○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행정업무는 국가관광행정기관(NT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가 수행하며, 국가관광기구(NTO: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는 행정권이 없이 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위주의 관광진흥 사무를 통해 국가관광행정기관(NTA)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 국가행정기구(NTO)의 역할은 국가관광행정기관(NTA)가 결정하는 관광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나 역으로 관광정책수립에 영향을 주기도 함. NTA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함.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부처는 제2차관 아래 관광정책국이라고 볼 수 있음. 공공부문의 중앙정부 차원의 준 관광정부기구인 NTO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에 해당되며, 민간부분의 중앙정부 차원 조직은 관광협회 중앙회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 R&D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으며, 관광통계를 담당하는 관광 지식정보시스템 운영 및 각 분야별 문화, 예술, 산업, 정책, 융합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공부문에는 RTA인 지역 관광행정기관과 RTO인 시·도 관광기구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RTA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RTO의 역할은 제주관광공사로 볼 수 있음

○ 이익집단(Interest Group: IG)은 정부의 공식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제기하는 결사체 또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관광관련 기업이나 시민들로 구성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관광정책결정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과 정책결정자 양쪽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 조직으로서 제주의 경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있음.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R&D) 기관으로 제주연구원, 제주관광학회, 각 관광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정책 행정조직 및 협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정책, 즉 관광 콘텐츠 관련 담당행정조직은 단지 관광국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과 같이 관광 콘텐츠와 연결성을 갖는 부서를 포함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정책 관련 주요 행정조직 및 협력기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행정조직

□ 관광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1국(관광국) 산하에 3과(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 정책과)로 구성됨(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행정조직도 참조)

<그림 2-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행정조직(관광국)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9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조직도는 행정부지사 관할에 1국 중심으로 3개 과와 10개의 담당으로 구성됨

〈그림 2-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직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9

□ 환경보전국

○ 조직도는 행정부지사 관할에 1국 중심으로 4개 과와 20개의 담당으로 구성됨

〈그림 2-4〉 환경보전국 조직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9

(2) 주요 협력 기관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의 조직은 사장, 본부장, 4개 처, 1개 사업단, 1개 센터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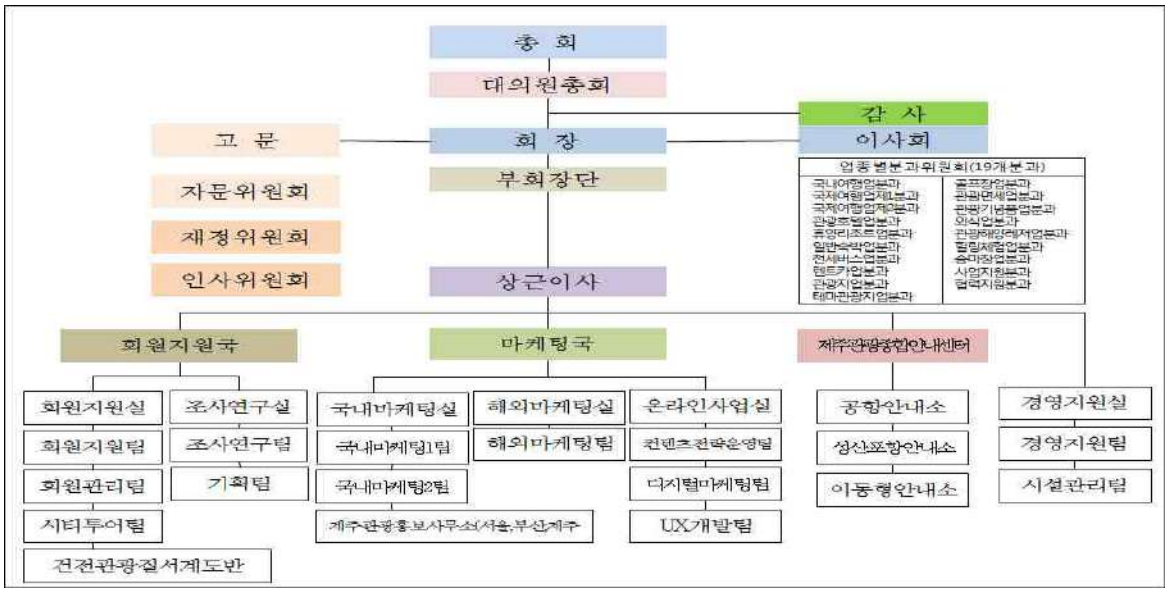
<그림 2-5> 제주관광공사 조직도

자료: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2019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조직도는 회장을 중심으로 3개국 6실로 18담당으로 구성됨

<그림 2-6> 제주관광협회 조직도



자료: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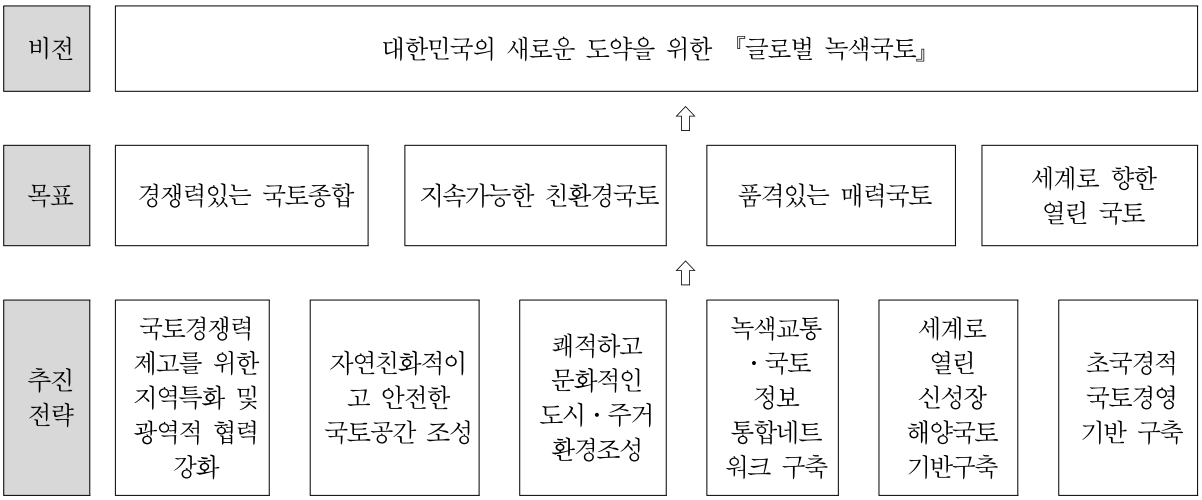
다. 기본계획 및 시책

1) 중앙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같이 2011년부터 2020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내용을 발표함

○ 제4차 수정계획의 내용 중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등 추진전략은 제주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에 방향성을 나타냄

<그림 2-7> 제4차 국토종합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자료: 제3차 관광진흥계획, 2019.

○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과 맥을 같이하여 제주권역은 다음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관광 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국제자유도시'이며, 기본목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연유산관광 및 MICE산업의 중심'이라고 표명함

○ 그 세부목표는 첫째, 국제교류·관광·문화 중심의 관광휴양 지역화, 둘째,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산업 확보 지역 셋째, 청정환경, 세계자연유산 및 녹색성장의 모범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정환경 보전 및 녹색성장도시 실현으로 정하고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기본계획 및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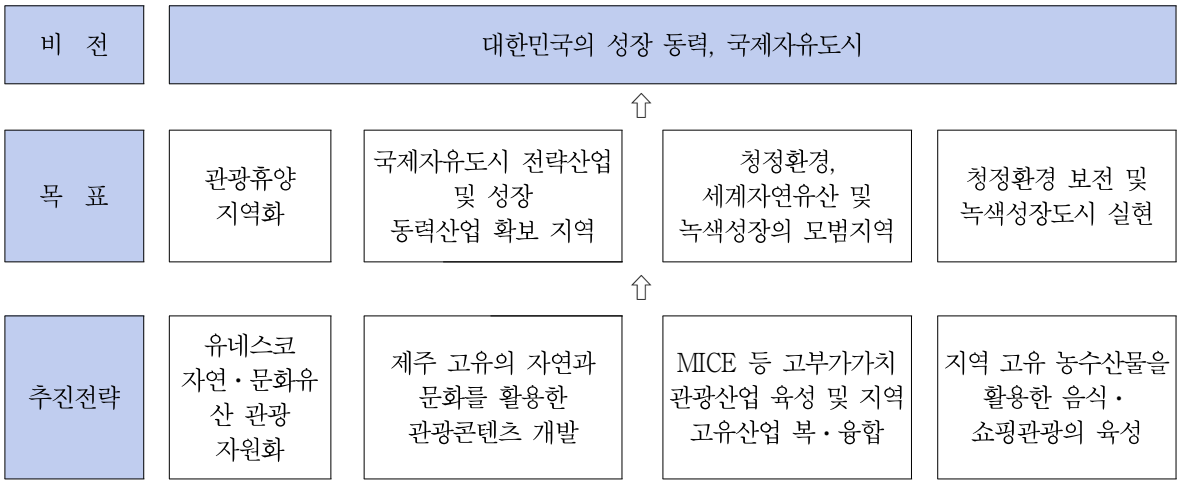
○ 위에서 살펴본 국토종합계획은 제주 관광의 2012년 - 2021년까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연결되고 있으며 그 전략은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함

①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② 제주 고유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③ 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 고유산업 복·융합
④ 지역 고유 농수산물을 활용한 음식·쇼핑관광의 육성

○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같음

<그림 2-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자료: 제3차 관광진흥 기본계획, 2019. 연구자 재정리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2021년까지의 제3차 관광진흥 기본계획 안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연유산관광 중심'이 되는 목표에 응대하는 관광 콘텐츠에 주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안에서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과 시책을 살펴봄

○ 첫째,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조례에 따른 정책 및 시책은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콘테스트」,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국비직접지원)」, 「공영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보강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추진」,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다목적공간 공사 및 기획전 전시 추진」을 시행함

○ 둘째,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정책 및 시책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배치」, 「도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대상자 실무수습배치 준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관광콘텐츠) 기념품 공모전 추진」,「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시행함

○ 셋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따른 정책 및 시책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대상자 이론교육실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배치계획 수립」, 「2016년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제작사업 시행」을 시행함

○ 넷째, 공영관광지에 대한 정책과 시책은 공영관광지가 가지는 특성에 맞게 부서별 시행으로 나누어져 있음.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 관련 조례와 정책 및 시책[9]

관련 조례	정책 및 시책
문화콘텐츠산업 조례	·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콘테스트 ·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국비직접지원) · 공영관광지 관광 약자 편의시설 보강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추진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다목적공간 공사 및 기획전 전시 추진
관광진흥조례	·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배치 · 도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대상자 실무수습배치 준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관광콘텐츠) 기념품 공모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대상자 이론교육 실시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배치계획 수립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제작사업 시행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 공영관광지에 대한 정책과 시책은 각 부서별 해당 사항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

3. 제주지역 문화 · 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정책 분야 젠더 이슈

○ 지난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문화·관광정책 분야 성인지정책 대상 사업[10]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의제를 살펴보았음.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별 문화·관광정책 분야 성인지정책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 관광정책분야 성인지정책 대상 사업

소관부서	주요 성인지예산 사업 (지난 3년간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서관 운영 활성화 문화산업 및 콘텐츠개발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평화교육지원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관광국	관광산업 육성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3관왕 통합 홍보(신규)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9)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국별로 조례에 명시된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과 시책을 말함(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2019년 기준)

소관부서	주요 성인지예산 사업 (지난 3년간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
	문화유적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신규) 국립공원관리
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 운영(신규) 영상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신규)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신규)
한라도서관	독서지도프로그램 운영 정기간행물 구독 서비스(신규)
제주도립미술관	미술관 대학 운영 지원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신규)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신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건립사업(신규) 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제주올레 올레길지킴이 운영 생활체육서비스 지원(신규) 유소년체육 육성교실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학교 운영(우당도서관) 어린이 상설프로그램 운영(우당도서관)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문화학교 운영 애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한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신규)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체육회 활동 지원 서귀포예술의전당 특별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중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기적의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안덕산방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정책 분야 성인지정책 대상사업 유형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젠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11)]

① 문화체육관광시설 조성·운영 및 교육사업

- 주요 사업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의 문화프로그램

1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및 「주요 정책 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가이드」(김둘순외, 2016) 참고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
- 젠더 이슈
· 문화행사 관람 및 이용 등의 참여자는 여성이 많으나, 행사를 주최하는 단위의 행사지원이나 보조역할은 여성이고 주도적 역할이나 의사결정 구조에는 남성이 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남
· 도서관 및 문화·예술·관광시설 이용도, 문화행사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참여도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음.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도서관, 문화·예술·관광시설 등의 이용에 여성의 참여율이 높음. 또한, 주중 및 주말 등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성별로 이용률 차이가 있음. 경제활동 시간 사용의 용이성, 경제력 상승, 동호회 활동 증가 등으로 주중 여성 및 어린이 방문(이용)률이 매우 높음
· 남성 중심의 예술작품 주제선정, 사회 주요인물 선정에서 관행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많음. 공공조형물 주제,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전통문화 및 역사 복원 등의 사업추진 시 남성 중심의 역사관이나 인물, 주제선정 관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사회 주요인물 선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어왔음

② 문화체육관광 인력양성 사업
- 주요 사업
· 문화산업 및 콘텐츠 개발(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 관광인재육성사업
· 지역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문화예술 전문기획자 양성) 등
- 젠더 이슈
·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여성이 많거나 성비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전공자의 경우에도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업예술활동 비중은 남성에 비해 적고 평균 수입도 적음
·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으로, 고용조건 및 근무환경, 일생활 양립 여건조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왔음. 이처럼 여성에게 불리한 근로여건 속에서 여성문화예술인은 저임금 노동구조와 경력단절 상황에 처하게 됨

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콘텐츠 관련 젠더 이슈

○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특히 공영관광지의 콘텐츠는 대부분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등을 살펴봄으로써 젠더 이슈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주의 관광 트랜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제주의 관광은 단순히 볼거리 위주였다면 최근의 추세는 특정한 목적이 있거나 테마, 이야기가 있는 관광 위주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음. 예를 들어, 다크투어리즘,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를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18)[12)]

○ 이와 관련하여 도내 유료 공영관광지 33곳(2016년 기준) 가운데 적자를 내는 곳은 66.7%로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특정 관광지를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방식으로 여행 추세가 바뀌고 있는 최근의 제주 관광 트랜드 변화(제주관광공사, 2018)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제주를 찾는 이들은 제주에 정주하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살아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광지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를 대표하는 공영관광지 관련 정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대부분의 민영관광지가 제주의 역사·문화와 무관하게 단순 관람형 위주의 박물관 형태로 개발·운영되면서 제주의 특성에 대해 알리는데 미흡한 한편 공영관광지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반영하고 있는 위주로 개발·운영(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학회, 2019)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그동안 제주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를 자원화하는 연구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이에 대한 유통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이루어진 제주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9> 제주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관련 최근 연구 현황

연구자 & 년도	연구명	주요내용
장영주 2012	설문대 신화에 나타난 교육이념 연구	· 신화의 교육적 가치 · 설문대신화 표준본에 나타난 교육철학사상 · 제주인의 시대정신이 추구하는 교육철학사상 · 교육과정과 연계 활용 · 문화관광콘텐츠산업과 연계 활용 · 교육철학사상 활용에 기여 ·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제주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문순덕·김영철 2013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화 방안 연구	·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 현황 ·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 유망 분야 ·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화 방안 - 제도적 지원 방안 - 인프라 구축 방안 -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

12) '2017년 공영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성산일출봉 및 우도 등 자연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다크투어리즘 및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가 있는 관광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

연구자 & 년도	연구명	주요내용
		- 제주지역 대학과 산업체 인력양성 방안 - 제주문화상징 99선 활용 방안
노미경 2014	마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제주시 화북동 발전방안 연구	· 마을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 지정·비지정문화재현황 ·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사업 · 화북 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 노씨 부인과 모주 & 마을 브랜드 상품 개발 - 공간구성을 통한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전영준 2015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 역사문화자원의 재인식과 현재성 - 제주문화와 문화콘텐츠 산업 -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과 유형별 특징 · 제주 역사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적용 - 제주 역사문화콘텐츠 기획의 인문학적 중요성 - 제주 역사문화콘텐츠의 지역축제 적용
정민의 외 2017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	·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의 중요성 · 해양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발전과의 관계연구 · 제주해녀문화를 통한 해양관광콘텐츠의 개발방향 -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해양관광콘텐츠의 개발 -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해양관광콘텐츠의 다양화 - 집단지성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해양관광콘텐츠 생산 공간 제공
전영준 2018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과 유형별 특징 · 제주문화콘텐츠의 창출 방향 · 제주 지역박물관 자료와 역사문화원형의 활용
정슬기 2018	제주도 설문대할망 설화의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 지역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 관광 스토리텔링의 개발 · 지역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사례 · 제주지역 설화의 성격 · 제주의 설화 콘텐츠 · 설문대 할망 설화 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 설문대 할망 설화 관광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이웅규 외 2018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제주도 해양관광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섬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역사성과 복수성 · 신화와 전설의 섬 · 제주어의 역사성 · 제주도민이 참여하고 관광객과 소통하는 해양축제를 통해 제주도의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 이와 같이 제주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다룬다기보다 해양콘텐츠라는 개념으로 해녀유산에 대한 연구와 특정한 제주신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녀' 콘텐츠와 '설문대할망'이라는 신화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음. 아울러 젠더 관점의 지역역사문화자원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는 젠더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성을 제기함. 한편 기존에 2000년대 들어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을 중심으로 제주여성의 삶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젠더 관점에서 서술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강경숙 외, 2015; 정여진 외, 2018).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0〉 제주도에서 발행한 제주여성 재조명 관련 목록

구분	발간 연도	도서명	저자	출판기관	주요내용
1	2001	사진 자료집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 1970년대 이전 자료를 생활, 경제, 교육, 문화로 분류하여 게재
2	2001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Ⅱ · 워크숍 자료모음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정현백외 11인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 제주여성사정립 워크숍, 한국여성학회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자료 - 제주여성사 정립의 지평 마련을 위해, 제주여성사의 방향, 제주여성의 일상, 제주해녀의 삶, 제주여성의 신화와 삶
3	2002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Ⅲ · 신문기사자료집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4	2003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Ⅳ · 사진자료집2-제주여성, 시대를 어떻게 만났을까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 1980~2000년 동안의 사진 자료를 사회, 생활, 경제, 교육, 문화, 복지로 분류
5	2004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Ⅴ · 제주여성 근 · 현대사 구술자료①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6	2004	제주도문화자료총서9 -제주여성 전승문화	양영자 외 5인	제주도	· 세시 풍속과 전승 민요, 통과의례 속의 제주여성 풍속 전승 양상, 제주신화 속의 여성신들 그 특징과 의미, 제주여성상 원형 왜곡과 재생, 재일 동포 제주여인들의 삶
7	2005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Ⅵ · 제주여성1호 찾기 - 시대를 앞서 간 제주여성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 「교육 · 종교」, 「정치 · 행정 · 법조」, 「언론 · 문화 · 체육」, 「의료 · 보건 · 복지」, 「경제」 등 5개 분야의 직업 중 여성1호
8	2006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 Ⅶ · 제주여성 근 · 현대사 구술자료②-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난 살았주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제주도 · 제주여성 특별위원회	· 1935년 이전에 제주에서 출생한 여성들의 구술 자료(16명)
9	2006	제주여성문화개념 정립 연구보고서 제주여성문화	김은석 · 문순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제주여성사>정립을 위한 기초 사료로 펴냄 - 서양의 여성문화, 동양의 여성문화, 한국의 여성문화
10	2007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 Ⅷ ·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양상호 외 3인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여성의 삶의 공간에 주목한 연구 -전통주거,노동공간,통과의례공간, 전통신앙공간
11	2007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Ⅸ · 전통 · 맥 · 향(제주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 제주 여성무형문화재 보유자 11명 구술채록 자료

구분	발간 연도	도서명	저자	출판기관	주요내용
		성 무형문화재의 생애)			
12	2007	제주여성사료집1	기획: 문순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제주여성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비변사 등록」 「탐라지」 등의 사료 수록
13	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문순덕 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발전연구원	· 여성문화유적 발굴 · 보존,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마을별 주요 여성문화유적 정리
14	2008	제주여성사료집2	기획: 문순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여성사료집Ⅱ」의 후속작 - 1876년 이후 제주여성 관련 자료 -「조선총독부관보 중 제주록」,「천주교선교사 서한집」, 「이순옥 탄원서」 등의 사료 수록
15	2009	제주여성문화유적 100	기획: 문순덕 필자: 김순이외 5인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여성문화유적」의 후속작 - 물통, 신당, 불턱, 인물, 소금밭, 4.3 유적지 등의 여성문화유적 선정
16	2009	제주여성사 I	기획 문순덕 · 고창석 필자: 강만생외 20인	제주발전연구원	· 선사시대~1910 - 제주여성사의 관점과 방향, 제주여성의 역사적 지위, 경제 · 문화 · 종교 · 통과의례 등 분야별 제주여성사
17	2011	제주여성사Ⅱ -일제강점기	기획: 문순덕 필자: 문혜경 외 21인	제주발전연구원	· 일제강점기 제주여성사 -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근대민족교육,항일운동, 출가해녀, 노동과 시장, 신앙, 풍속의 변화 등

자료: 강경숙, 안미정(2015)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이상에서 제주지역 관광정책의 추진 배경 및 변화, 관광 콘텐츠 관련 추진기반 및 정책 현황과 젠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제주지역 관광정책의 추진 배경 및 변화에서 보면, 제주의 관광산업과 정책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후 지역개발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관광산업과 정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관련 추진기반을 보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문화콘텐츠산업 조례, 관광진흥조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조례 그리고 공영관광지 관련 조례 등이 만들어지면서 관광정책 및 시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힘을 실어줌

○ 또한, 정책과 시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관광행정조직도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갖추며 변화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 총괄부서는 2015까지 중앙정부의 조직 형태와 틀을

같이 하며 문화, 관광, 스포츠부처가 통합된 하나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9년도에는 문화정책과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분리되어 소속을 달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관광지의 '관광 콘텐츠'는 관광국에서만 관리되기보다는 협력이 필요할 경우는 서로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제주도의 관광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맥락을 같이하여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큰 틀에서의 중앙정부의 계획과 시책을 참고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은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지역에 맞게 시행함. 현재, 도는 관광국을 비롯한 여러 행정조직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그 외 유관기관들이 협조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비전에 대해서는 명료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불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음
- 요컨대, 이에 중심 역할에 대한 분업과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하지 않음. 현재의 관광 콘텐츠 분야의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 등 관광 콘텐츠와 관련이 되는 실국들이 상황에 따라 협조요청이 이루어지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제주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이에 대한 유통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젠더 관점의 지역역사문화연구와 관련 콘텐츠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 지역여성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제주 여성 및 젠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제주4·3사건, 해녀 경제와 문화, 신화, 역사 속의 여성인물과 활동 등 제주 역사와 문화 및 제주 여성 인물(활동) 등에 관한 젠더 관점의 재조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역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의 활성화는 관광, 문화,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관광 콘텐츠의 개발은 국토종합계획으로 정할 만큼 국가발전의 핵심산업이며, 제주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관광 콘텐츠 정책의 성차별 요인을 점검함이 필요함. 또한, 성평등 정책 개선안이 도출되고 이를 반영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제 3 장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개요
2.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3.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 모니터링 개요

○ 본 모니터링은 제주지역 관광지 콘텐츠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관광 분야의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되었음. 모니터링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 표(<3-1>)와 같음

〈표 3-1〉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개요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기간	· 2019. 7월 ~ 2019. 10월(4개월)
모니터링 대상	· 제주지역 관광지의 전시물과 안내·홍보물 - 제주지역 공영관광지(22곳): 역사·문화자원형(12곳) 및 전시·박물관형 관광지(10곳) - 기타 관광지(6곳):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
모니터링 방법	·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전문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내용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 차별적 표현 및 비하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성별 대표성 불균형

가. 모니터링 방법 및 대상

○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 방법으로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현장모니터링을 위해서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턴트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5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모니터링 과정 점검 및 결과 평가를 실시하였음

○ 모니터링 대상은 '제주지역 관광지의 전시물과 안내·홍보물'로, 모니터링 대상지는 제주지역의 역사문화 및 젠더 이슈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총 28곳을 선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중 역사·문화자원 및 전시·박물관형 관광지[13]' 22곳과 운영주체는 다양하지만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기타 관광지 6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음. 대상지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3-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대상지

역사문화자원형	전시·박물관형	기 타
항일기념관, 4.3평화공원,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항목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객주터, 제주목관아, 성읍민속마을, 서복전시관, 추사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감귤박물관, 세계자연유산센터, 국제평화센터,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박물관, 삼성혈, 혼인지, 러브랜드, 건강과 성박물관

주: '기타'는 공영관광지는 아니지만, 성차별적인 이슈로 문제화된 적이 있거나 성(性) 또는 지역역사문화자원 등 젠더 이슈와 관련성이 큰 관광지임

13) 내부 시설 개선 공사 중인 1개 시설 제외

나. 모니터링 지표

○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지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점검 지표(여성가족부, 2019)'를 참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와 모니터링단 워크숍을 통해 지표를 마련하였음

○ 모니터링 지표는 주제별로 구성하였는데,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 차별적 표현 및 비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성별 대표성 불균형' 4가지 영역임.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지표는 아래와 같음

〈표 3-3〉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지표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및 점검 포인트
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은 '가족-돌봄', 남성은 '생계부양'의 역할 - 남성은 사회지도층,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 - 여성은 쇼핑,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②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가? - 여성은 순종적, 남성은 강인함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 ③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 가족 성원을 '부모+아들+딸'로 구성
2. 성 차별적 표현 및 비하	①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여성을 꽃으로 비유, 미망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망한다 등 - 남성에 대해 남자답지 못하게, 남자가 그것도 못해 등 ②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여성을 허영심 많고 의존적 존재로, 남성을 과중한 짐을 떠안고 바쁜 존재로 - 여성은 잘 몰라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 -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남성을 무능한 존재로 묘사 ③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몸매) 강조(성적 표현 강조)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①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 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행위를 단순한 흥밋거리로 표현
4. 성별 대표성 불균형	① 특정 성별 또는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 홍보대상자 또는 수혜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 또는 특정 성별만 표현 - 지역주민의 경험을 다루는 경우임에도 특정 연령 및 성별을 중심으로 표현

2.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결과를 4개의 평가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콘텐츠 중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반영된 사례는 14개 발견됨. 세부 지표 중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 사례'가 9개로 가장 많았고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한 사례'가 4사례로 나타남. 한편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례'는 1사례로 나타남

1)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사례는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이 있다거나 성별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은 '가족-돌봄', 남성은 '생계부양'이라는 전형적인 성역할과 남성은 사회지도층이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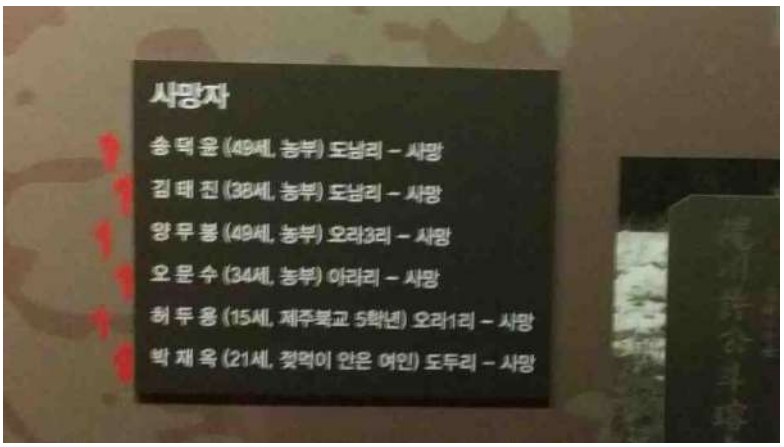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사례는 총 9개(5개 기관)로, '지역의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학습용 콘텐츠'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제주어 학습'과 관련된 상황과 인물(관계) 이미지에서 여성은 '가족-돌봄'의 역할을, 남성은 '생계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었고, 여성의 경우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위치에, 남성은 주도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남

○ 앞으로 제주지역의 노동,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 특히, 교육과 학습용 콘텐츠의 주요 수요층인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생소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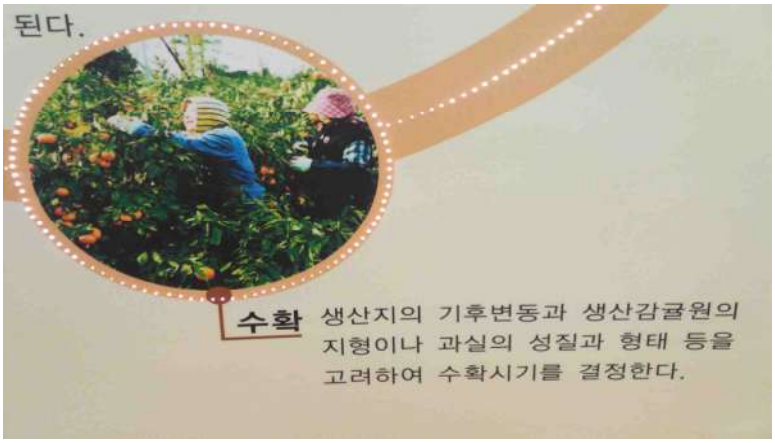
〈표 3-4〉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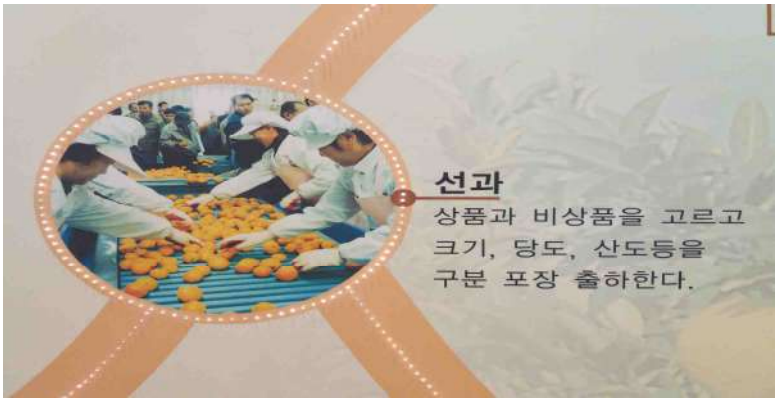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제주민속 자연사 박물관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전시실 영상자료 <제주어 체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어 체험 전시실의 에니메이션 이미지에서 여성은 렌터카 회사 직원, 시장 상인, 해녀, 관광객 등으로 그려지는 한편 남성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 관리인 등으로 이미지화됨. 특히 식당 종사자의 경우 여성만 앞치마를 두르고 있음(3번 사진). 이는 여성은 보조적이거나 가사-돌봄과 밀접한 역할을 하고 남성은 관리인이나 안내인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개선 필요 ☞ 제주지역의 직업이나 활동에 대해 표현할 때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직업과 활동에서의 다양한 성별 배치
2	제주4·3 평화공원	콘텐츠	  <3.1 발포 사건 상황에 관한 전시물>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4·3사건 발발의 계기가 된 1947년 3.1 발포사건에 관한 전시물. 3.1절 기념대회에서 사망한 민간인 6인 중 남성 5인의 직업(농부, 북교 5학년)은 기재되어 있으나 여성 사망자는 직업 없이 "젖먹이 안은 여성"으로 표현됨. 이는 여성은 '가족-돌봄', 남성은 '생계부양'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 한 표현으로, 전통적으로 제주는 남녀노소 모두 생계부양에 동참해 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여성 사망자는 어머니이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으로 모두 표현할 필요 있음 ☞ 여성 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으로 '농부' 등 직업을 함께 표현
3	제주4·3 평화공원	콘텐츠	초가집이 되자 산부대의 식량조달이 곤란해져서 마을에서 약탈하거나 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마을의 어머니들, 주로 산부대에 가족이 있는 어머니들이 '오줌허벅'(비료용 소변을 담아 운반하는 둥근 옹기항아리)에 보리나 조를 넣어 경비대의 감시 눈이 빛나고 있는 가운데를 지나 소변과 같이 뿌리고 돌아 갑니다. 그걸 산부대가 와서 밤에 긁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유대가 없으면 그런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산부대에 대한 공감은 그 정도로 강한 것이었어요. 김시중 (당시 19세) 제주시에 사는 친척 할거리(바깥채)에 육지군인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내에게 말하길 '밥 먹을 생각이 없다. 술만 가져오라'라고 해서 말없이 마시다가 '오늘 너무 아까운 젊은이들을 죽였다. 모두 총살시켜 구덩이에 말젖 담듯이 쏟아 넣었다. 한 명도 살려달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여기를 당장 떠나고 싶다'라고 하더니 얼마 없어서 육지로 발령받아 나갔어요. 김이선 (여, 당시 17세) **4·3사건 70주년 기념 책자 <4·3이 머우꽈?>의 피해사례**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4·3사건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여성 피해자만 성별을 표기하고 있음. 이는 남성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이 다양한 영역(언론,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음. 단순히 성별을 표기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른 경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증언자의 성별 표기를 남녀 모두 하거나 또는 모두 삭제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4	감귤 박물관	콘텐츠





<상설전시실> 감귤농업의 과정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감귤농사의 과정에 관한 전시물. 명확하고 정형화된 성별분업의 이미지를 보여줌. 구체적으로 남성은 묘목 심기, 방제, 수송 및 유통 등 감귤농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여성은 감귤 수확 및 선과 등 특정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짐. 육체적인 힘을 많이 쓰는 묘목 심기 및 감귤 나르기 등은 남성의 역할로서 남성이 선호되기는 하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업무가 이루어짐. 이는 고정되고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전시물로서 실제 농촌에서 남녀노소 함께 일손을 돕는 이미지로 개선 필요 ☞ 감귤농사 전 과정에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미지 반영하여 수정
5	국립제주 박물관	콘텐츠	 박물관 홍보용 책자 <아하! 제주도>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어린이 체험실에 비치된 박물관 홍보용 책자 <아하! 제주도> 뒤편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의 삽화. 대표자, 관리자, 보안요원, 시설 등 안전 및 관리자, 대표 등의 직무나 직책은 남성으로 재현되고 있고, 문화재 관리, 전시해설, 교육 등의 직무는 여성으로 재현됨. 특히 어린이용 교재로서 어린이들에게 직업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개선 필요 ☞ 직업이나 활동에 대해 표현할 때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직업과 활동에서의 다양한 성별 이미지 활용
6	국립제주 박물관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문화재 기증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자료>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문화재 기증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자료. '5. 소장품 등록-연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 이미지 등장. 전문분야인 연구는 남성, 교육・전시 안내・기초자료 검토 등은 여성으로 이미지화. 예외적으로 심의・의결 기능을 하는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전부 여성으로 배치하고 있음.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은 연구 등 전문적인 위치에 여성은 기초자료검토 및 교육과 같은 보조적인 위치에 역할을 부여하는 성별 위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둘째는 문화와 전시관련 분야는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함. 요컨대, 문화재 기증방법과 과정에 대해 홍보하면서 여성인물 을 부각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음으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 문화재 기증 과정에 대한 홍보물에 인물 이미지 사용 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인물 이미지로 개선
7	제주교육 박물관	콘텐츠	 **전시실 영상자료 <제주어 학습>**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학습 영상자료 중 '의류' 카테고리에 나오는 장면.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 중 여성은 아이를 업고 있는 이미지로 재현됨. 이는 여성은 '가족-돌봄'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음으로 개선 필요 ☞ 인물 및 이미지 기획 시 구성원 간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점검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자료임을 고려하여 교사-학생, 친구, 가족 등 여러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나 위계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8	제주교육 박물관	콘텐츠	 **전시실 영상자료 <제주어 학습>**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학습 영상자료 중 '음식' 카테고리에 나오는 장면. 장모와 사위, 딸의 관계로 보이는 이들이 등장하고 장모가 사위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장면으로 이미지화 됨. 무엇보다 제주지역의 음식에 대한 교육자료에서 장모와 사위 관계를 차용하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며, 아울러 해당 장면에서 가족 내 '남성-사위'는 중요하고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성별 위계를 강화할 수 있음으로 개선 필요 ☞ 인물 및 이미지 기획 시 구성원 간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점검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자료임을 고려하여 교사-학생, 친구, 가족 등 여러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나 위계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9	제주교육 박물관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도 세시풍속 여름 summer 제주의 세시풍속은 농사의 주기, 즉 절기에 따라 신앙과 생산의 공동체가 절후에 맞게 일정하게 치르는 명절, 의식, 놀이의 관습이다. 매년 2 날이 되면, 생활 속에서 믿고 지켜온 풍습이다. 6월 닭 잡아먹기 닭잡아먹기: 삼복(여름)더위를 지내기 위해 몸보신하기 위하여 기르던 닭을 잡아 먹는 날이다. 7월 백중제 백중제: 음력 7월 14일 자시에 "바령피" 에 가서 제를 지낸다. 물맞기(바다에서 몸을 씻으면 궂은 허물이 날리고, 쑥포수를 맞으면 허리병이 낫는다.)도 있다. 8월 모듬벌초 모듬벌초: 추석명절을 앞두어 조상님의 산소를 돌보는 일로 문중 또는 가족끼리 모여 돌아가신 조상의 산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일이다. 제주도 세시풍속 가을 fall 제주의 세시풍속은 농사의 주기, 즉 절기에 따라 신앙과 생산의 공동체가 절후에 맞게 일정하게 치르는 명절, 의식, 놀이의 관습이다. 매년 2 날이 되면, 생활 속에서 믿고 지켜온 풍습이다. 9월 콩타작 콩타작: 밭작물을 수확하는 일로 콩이나 참깨등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다. 10월 마소귀표 마소귀표: 말이나 소들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귀에 표식을 다는 일. 11월 메주 장담기: 주부들이 김장하고, 장을 담그는 일은 한해살이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장은 콩을 수확하여 10월에 메주를 쑤고, 11월에 장을 담근다. 장을 담글때는 돼지날, 개날, 뭄날, 독날에 담았다. 전시물 <제주도 세시풍속>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도의 세시풍속을 보여주는 전시물. 제주의 세시풍속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농사의 주기, 즉 절기에 따라 신앙과 생산의 공동체가 절후에 맞게 일정하게 치르는 명절, 의식, 놀이의 관습이다. 매년 그 날이 되면, 생활 속에서 믿고 지켜온 풍습이다." 설명에 의하면 제주도의 세시풍속이란 도민의 신앙과 노동, 공동체적 삶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삶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재현되고 있음. 닭을 잡고, 제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굿을 하는 모습은 모두 남성으로 표현되고 여성의 모습은 5월 단오절 그네뛰기, 아기 업은 모습,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 김장담그기 등 돌봄을 수행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그려짐. 이는 실제 제주지역의 성역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현물로서 비가시화된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제주의 세시풍속 콘텐츠에 남녀노소 다양한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한 예로, 제례 및 민간신앙(신당, 굿)에서 여성들의 역할 및 노동 영역에서 여성들의 노동과 중간산-해안 지역 등 지역별 다양한 노동 이미지 사용

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례[14]는 여성은 순종적, 남성은 강인함으로 표현되거나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성별 이분법적으로 표현한 경우를 말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해당 지표에 해당하는 사례는 1개로 주민대상 문화 프로그램 홍보물에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5〉 '여성다움' 과 '남성다움' 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제주교육 박물관	콘텐츠	 <행사 홍보 리플렛> 토요박물관 산책

14) 제주지역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의미는 앞서 제시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해녀 등 제주여성들은 '강인함'이 특징으로 이야기되어왔으며 실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이를 반영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젠더의 특성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주민 대상 문화행사 홍보물로, 전체적으로 파란과 분홍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물 이미지에도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음. 이는 남성은 파란색이 적합하고 여성은 분홍색이 적합하다는 성별에 따른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색상 활용하여 이미지 구성 필요

3)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

○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하고 있는 사례는 가족 성원을 '부모+자녀'로 구성된 부부중심 핵가족을 일반적인 가족으로 보는 인식을 반영한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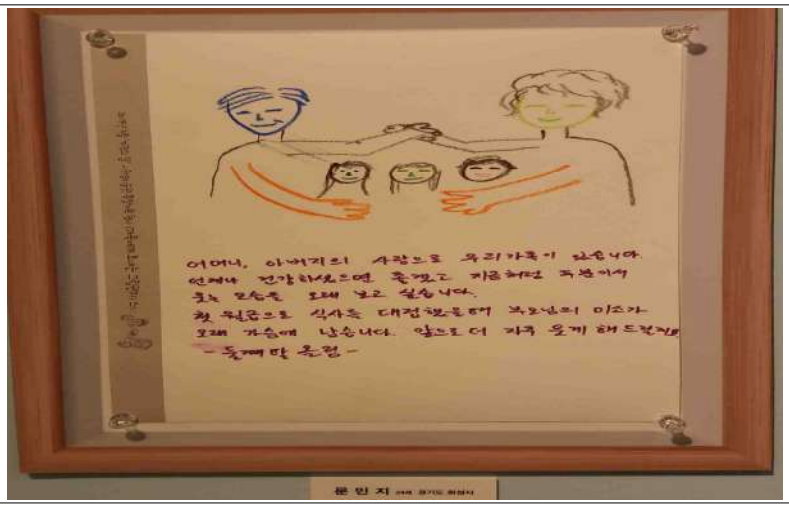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 중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개(4개 기관)로 '체험 및 공모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나타남. 예를 들어, '항일기념 만세체험', '갈옷입기체험' 등 가족 또는 관람객 대상 체험프로그램과 기타 가족 대상 공모 프로그램의 전시물 또는 안내문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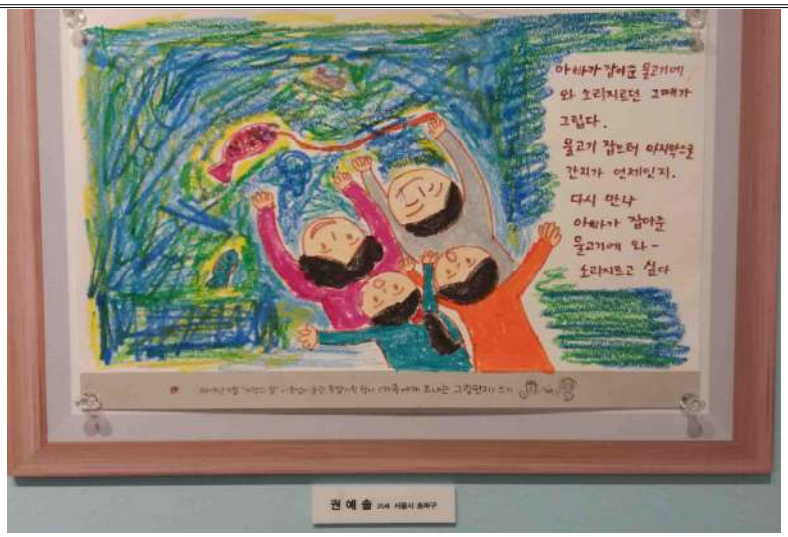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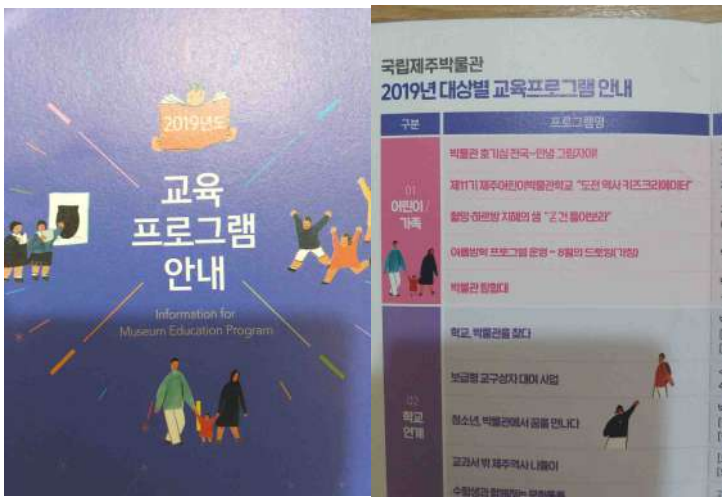
○ 이와 같은 이미지는 관람객들에게 특정유형의 가족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향후 다양한 관람객의 요구 반영과 정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하고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6〉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하고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항일 기념관	콘텐츠	 <만세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우리 가족은 독립운동가'라는 주제의 가족 대상 만세체험프로그램임.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결과 및 개선 의견	안내배너 속 가족 이미지가'부모+딸+아들'로 이루어져 있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들이 배제를 경험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함 * 단, 실제 체험복은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사례임 ☞ 가족과 관람객의 다양성(다양한 연령과 성별 구성원 이미지)을 반영하여 이미지 개선
2	민속 자연사 박물관	콘텐츠	 **<갈옷입기 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갈옷입기 체험프로그램'임. 성인 남성과 여성, 어린 남성과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갈옷이 4벌 구비되어 있어, '부모+딸+아들'로 구성된 특정 가족을 연상하게 하며 실제로 다양한 관람객들이 체험하는 데 있어 체험복이 다양하지 않아 제약이 있음. 다양한 가족 및 구성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복을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람객의 다양한 세대 및 체형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크기의 갈옷 확대 비치
3	이중섭 미술관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기획전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가족에 대한 그림편지를 전시한 특별기획전. 대부분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어, 일부 특정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편 국제결혼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실제 다양한 가족 형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다양한 가족 유형(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반영한 기획·전시
4	국립 제주 박물관	콘텐츠	 <프로그램 및 행사 홍보 리플렛>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홍보 리플렛. 리플렛 속 가족 이미지가'부모+자녀'로 이루어져 있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들이 배제를 경험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을 고려한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함 ☞ 가족과 관람객의 다양성(다양한 연령과 성별 구성원 이미지)을 반영하여 이미지 개선

나. 성차별적 표현 및 비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콘텐츠 중 '성차별적 표현 및 비하'에 해당하는 사례는 7개 발견됨. 세부 지표 중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3개,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 사례'가 3개,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례'는 1개 순으로 나타남

1)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망한다 등과 같은 이미지와 언어 표현 등에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 중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총 3개(2개 기관)로, '성적 행위 및 담론 관련 콘텐츠'에서 나타남. 특히, 성(sexuality)을 주제로 하는 민영박물관, '러브랜드'와 '건강과성박물관'의 콘텐츠에서 나타남

○ 위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성(sexuality)과 몸을 대상화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전시물에 대한 기획 의도나 해설 등의 어떠한 맥락 없이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고 피학적인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거나, 여성을 성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비하하는 경우임

○ 이처럼 해당 콘텐츠를 통해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왜곡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음. 향후 성(sexuality)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면 수정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7〉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러브랜드	콘텐츠	 <피학적 여성 피큐어 전시물>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고 피학적으로 구성된 여성 피규어 전시물.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모습의 피규어가 많아 젠더 폭력 및 범죄를 연상케 함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폐쇄 등 조치 필요
2	건강과 성박물관	콘텐츠	 **전시물 <성지식에 관한 ○× 퀴즈>**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지식에 관한 ○× 퀴즈를 통해 성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의도의 전시물. 키스와 성병의 상관관계에 관한 상황을 재현하면서, 술집과 같은 장소에 여성과 남성 두 사람이 등장하고 야한 옷을 입은 여성을 바라보며 한 남성이 "나 저 애랑 키스했는데 혹시 성병 걱정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함. 이는 성병은 여성 특히 '술집에 있는', '섹시한' 여성들이 매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면 수정 필요
3	건강과 성박물관	콘텐츠	 **전시물 <성병의 종류>**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병의 종류에 관한 전시물. 성병의 여러 종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성 성기와 여성의 나체 이미지를 활용. 성병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음. 이는 여성들이 성별의 원인이자 매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여성들에 대한 성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면 수정 필요

2)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 중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례는 여성을 허영심이 많고 의존적 존재로, 남성을 과중한 짐을 떠안고 바쁜 존재로 그리거나, 또는 여성은 잘 몰라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로 묘사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남성을 무능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해당 지표에 해당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음. 해당 사례는 1개 사례로 '해녀와 불턱'에 대한 콘텐츠에서 나타남[15)]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8〉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제주교육박물관	콘텐츠	 해녀 관련 <상설전시실>

15) 해당 지표에서 관련 콘텐츠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제주 여성에 대한 '강함'의 이미지는 여성은 의존적인 반면 남성은 생계 책임자로 여기는 정형화된 성역할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임. 그렇다고 하여 제주남성이 돌봄 역할이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지표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남성을 무능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는 제주지역에서도 성차별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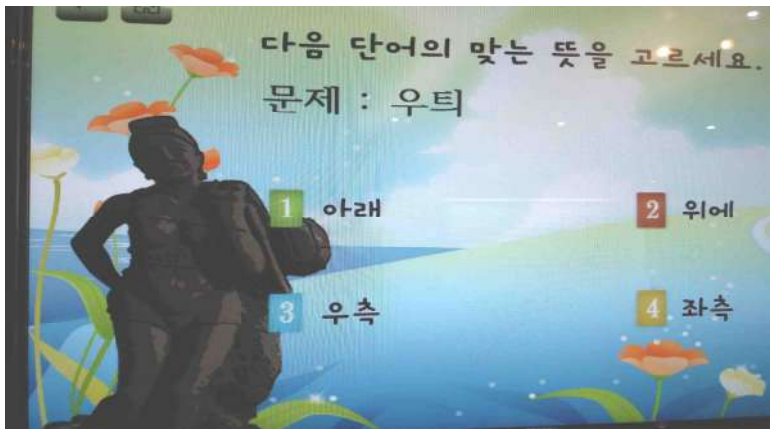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상설전시실’의 ‘불턱’에 관한 디오라마와 설명. 불턱에 관한 설명으로 ‘해녀들이 잡담을 하는 곳’이라고 표현. ‘잡담’의 사전적 의미는 ‘쓸데없이 지껄이는 말’로 해녀들이 일상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행위를 비하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불턱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축소할 수 있음. 불턱은 해녀들이 가정과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거나, 물질 기술을 전수되거나, 해녀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등 해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론의 장소로서의 의의가 있음. 따라서 불턱은 해녀들의 복합적인 활동과 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불턱은 ‘해녀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자 공론의 장’으로서 작품 해설 수정·보완 필요

3)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 ❍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 사례는 특정 성의 비현실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외모(몸매)와 성적 표현을 강조하는 경우 등에 해당함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 중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 사례는 총 3개(3개 기관)로, ‘김만덕, 해녀, 자청비(여성신화) 등 여성 관련 콘텐츠’에서 나타남
- ❍ 한 사례로 김만덕의 생애를 그린 에니메이션 영상물은 김만덕의 생애 중 기녀로 지냈던 시기를 부각하거나 외모를 강조하는 내용(“허허, 참 안타까운 일이야. 저런 미인이 이런 곳에 있다니”)을 그리고 있음. 또 다른 사례는 제주어 퀴즈 영상물로 해당 제주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해녀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섹슈얼한 이미지로 문제가 되었던 해녀 이미지를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 특정 성, 특히 여성의 외모 언급이나 강조는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을 외모나 몸에 한정 짓는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김만덕, 해녀, 여성신화 등이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과 의의에 주목하여 관련 콘텐츠의 개선이 필요함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9〉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 강조/외모 차별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세계자연 유산센터	콘텐츠	 <4D영상: 위) '신들의 섬, 제주' 포스터, 아래) 자청비 이미지 장면(버스정류장 안내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자연유산 홍보 4D 영상물. '신들의 섬, 제주': 오백장군과 자청비가 등장하여 악으로부터 제주를 지키는 스토리 구성. 농경의 신인 자청비 캐릭터는 긴 머리에 꽃을 꽂고 날씬한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 등 외모와 몸매가 강조되어 있음. 자청비는 제주의 무속신화인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으로 풍요의 상징이자 남성에 기대기보다는 남성에 맞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행동하는 여성임(제주특별자치도, 2009). 해당 영상은 자청비 신화에 대한 이해 없이 자청비의 이미지를 섹슈얼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자청비 신화에 대한 해석 전반에 문제가 있음 ☞ 여성신화에 대한 재현 시 외모와 몸매가 부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엇보다 해당 신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및 스토리텔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2	김만덕 기념관	콘텐츠	 <김만덕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상자료>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김만덕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 만덕이 마음에 든 한 대감이 관기로 있었던 만덕을 향해 "허허, 참 안타까운 일이야. 저런 미인이 이런 곳에 있다니"라고 표현. 김만덕의 생애 중 기녀로 있었던 짧은 시기와 외모에 대해 강조하는 측면이 있음. 이는 김만덕이 여성이라는 점, 기녀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표현이며 아울러 그의 삶의 의의를 축소할 수 있음.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시물의 경우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 필요 ☞ 특정 성, 특히 여성에 대한 외모 언급을 지양하고 후세대에 미치는 김만덕 생애의 의의에 주목하여 영상물 재현 개선 필요
3	제주교육 박물관	콘텐츠	 <제주어전시관> 영상자료 '제주어 학습'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시청각 영상물에서 해녀의 이미지가 성적으로 표현됨. 유두, Y존, 섹슈얼한 포즈 등 지나치게 여성의 신체 일부를 드러냄으로써, 해녀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단어와 문장에 맞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 해녀에 대한 섹슈얼한 이미지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개선 필요.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시물의 경우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 필요 ☞ 특정 성, 특히 여성에 대한 외모를 강조하는 이미지 활용은 지양. 이미지 개선 필요

다.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콘텐츠 중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사례는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폭력이 있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부부 또는 연인 간의 폭행과 폭언을 사랑싸움으로 표현하거나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 폭력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표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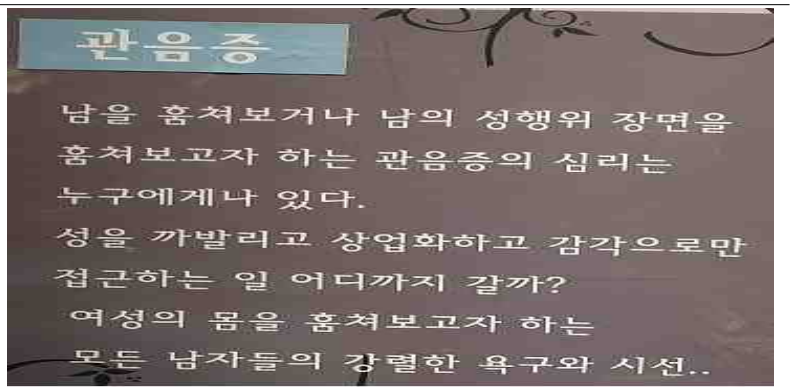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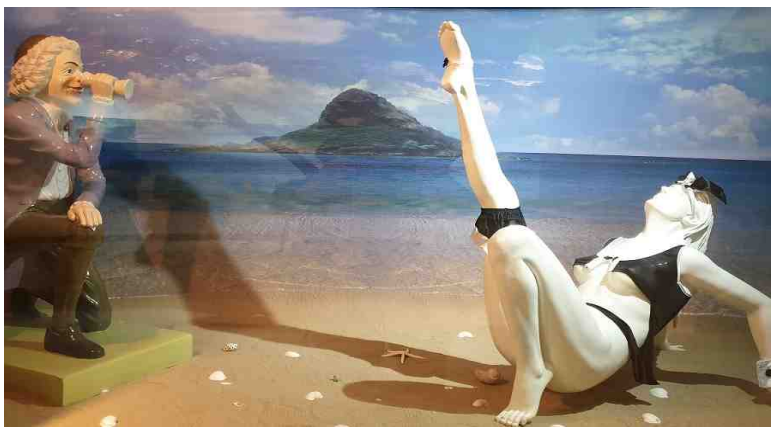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 중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사례는 총 4개(2개 기관)로, '성적 행위 및 담론 관련 콘텐츠'에서 나타남. 이는 앞에서 살펴본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러브랜드'와 '건강과성박물관'의 콘텐츠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들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성매매 등에 대해 전시하면서 단순한 흥밋거리 또는 (남성이라면)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접근하는 등 젠더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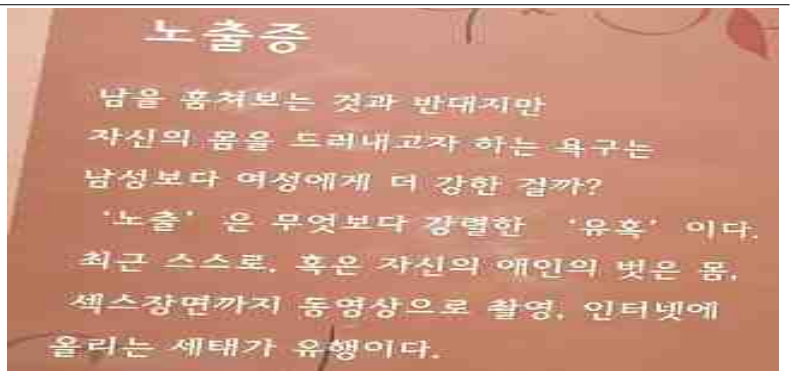
○ 해당관광지는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지로 제주 관광지의 이미지 및 사회적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해당 전시물에 대한 전면 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성(sexuality)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10〉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러브랜드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디마리오 전시관 <성에 대한 발칙한 상상>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에 대한 발칙한 상상"이라는 주제의 디마리오 전시관. 성에 관한 재미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치마 속 및 여성 화장실을 몰래 보는 모습의 디오라마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행위를 단순한 흥밋거리를 표현하고 있음. 성적인 폭력과 범죄를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어 매우 문제적임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폐쇄 등 조치 필요
2	건강과 성박물관	콘텐츠	  <관음증'에 관한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관음증'에 대한 설명. 남을 훔쳐보거나 성행위를 보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특히 여성의 몸을 훔쳐보고자 하는 심리는 모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개선 의견	남자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표현. 아울러 이를 성상업화와도 연결함. 타인의 사생활 및 성적인 행위를 훔쳐보는 행위는 폭력과 범죄임에도 남성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표현하고 있어 매우 문제적임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폐쇄 등 조치 필요
3	건강과 성박물관	콘텐츠	 **<'노출증'에 관한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노출증'에 대한 설명. 노출증은 여성의 욕망이며 여성의 노출이(남성에게)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성범죄의 여성유발론'을 연상시킴. 아울러 '자신, 또는 애인의 벗은 몸, 섹스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올리는 행위'를 '유행'이라고 표현하며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처럼 표현. 짧은 문장 속에 '성범죄 여성유발론'과 '리벤지 포르노' 등 젠더기반 폭력과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함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폐쇄 등 조치 필요
4	건강과 성박물관	콘텐츠	 **<'성매매' 및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적 폭력으로서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전시물. 성적 폭력의 한 범주로서 성매매를 설명하면서도 관련 이미지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의 누드 실사와 유흥업소가 즐비한 사진들을 사용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느낄 수 없게 하며 결과적으로 성매매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임 ☞ 전시물의 이미지 수정 등 조치 필요

라. 성별 대표성 불균형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콘텐츠 중 '성별 대표성 불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특정 성별 또는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홍보 및 수혜 대상자가 남녀 노소임에도 젊은 남녀 또는 특정 성별만을 포함하거나, 지역주민의 경험을 다루는 프로그램임에도 특정 연령 및 성별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콘텐츠 중 성별 대표성 불균형 사례는 총 10개(9개 기관)로, '기관 홍보 리플렛 및 책자, 게시판 등의 인물 이미지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콘텐츠는 기관의 특성 및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성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평화와 환경, 항일운동, 4·3사건 등 역사 관련 관광지는 주로 중년층 이상의 남성 인물 중심 콘텐츠가 많았으며, 김만덕기념관, 문화프로그램 등의 경우는 여성 중심 콘텐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성별화 경향은 평화, 환경, 역사 관련 분야는 남성 중심 영역이고 반면 여성역사인물을 다루거나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여성 중심 영역이라는 성별화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그동안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다양한 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다양한 연령, 계층, 성별 등의 참여자를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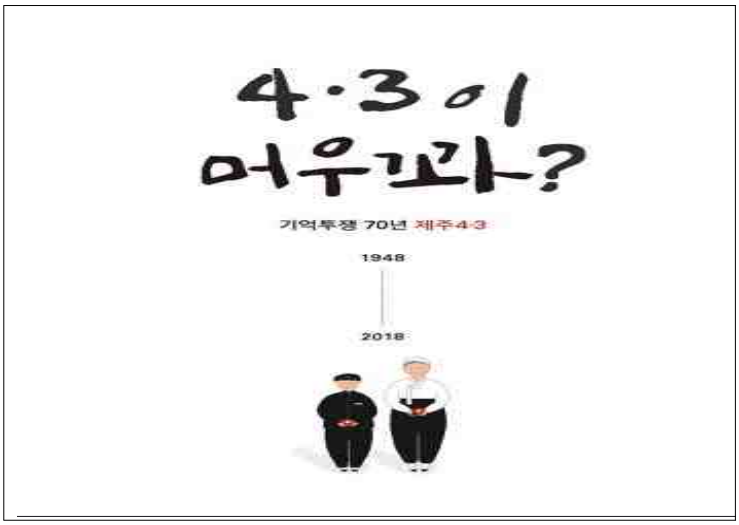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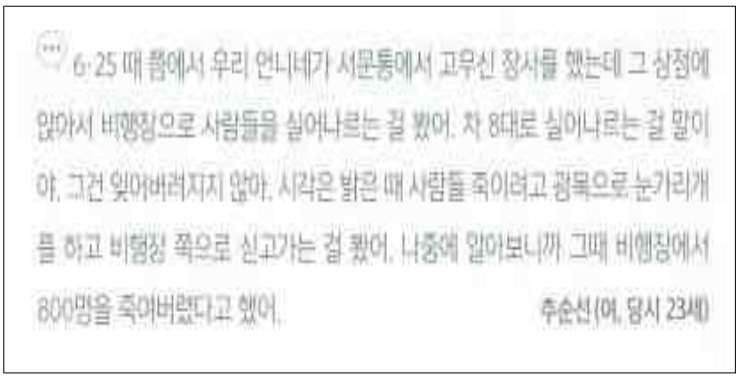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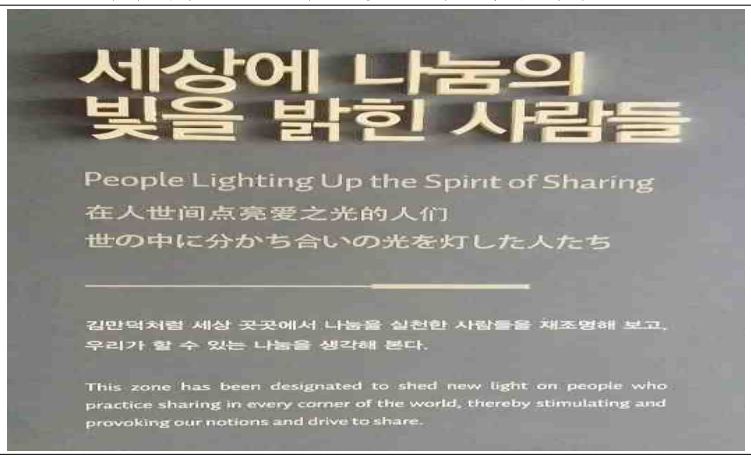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의 성별 대표성 불균형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11〉 성별 대표성 불균형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제주국제 평화센터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리플렛> 표지 & 속지 내용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기관 홍보 리플렛. 앞면에는 밀랍인형으로 만들어진 남성 유명인들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속지 또한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 모두 유명 남성(CEO, 연예인, 정치인, 체육인 등)의 이미지로 구성됨. 남성 기업 CEO, 정치인, 축구감독, 연예인 등으로 배치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특정 위치에 있는 남성들의 이미지만 다루고 있어 다른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배제하고 있음 ☞ 다양한 계층(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물과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2	항일기념관	콘텐츠	 <제주 3대 항일운동 재현 행사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의 3대 항일운동인 법정사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의 재현행사 사진 전시물. 3대 항일운동 중 해녀항일운동은 모두 여성 참가자로, 조천만세운동과 법정사항일운동 참가자는 모두 남성으로 성별화되어 있음. 특히, 조천만세운동과 법정사항일운동은 성별 구분 없이 참여했음에도 이를 재현하는 행사에서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항일운동 참여 경험에 대한 가시화 작업 필요 ☞ 항일운동 당시 여성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법정사항일운동과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전시물 및 이미지 활용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3	항일기념관	콘텐츠	 **항일운동 관련 책자 <제주의 항일독립운동>**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의 항일독립운동을 다룬 책자. 항일운동 재현행사 이미지를 다룬 표지를 보면 모두 남성으로 여성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항일운동 참여 경험에 대한 가시화 작업 필요 ☞ 항일운동 당시 여성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법정사항일운동과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전시물 및 이미지 활용
4	항몽유적지	콘텐츠	 **<순의문(항파두리 입구) 옆 패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항파두리 입구의 안내문. 기록에는 삼별초가 제주로 내려올 당시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 항파두리성 안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되어있으나, 당시 상황을 재현한 인물 이미지는 대부분 남성으로 특정 성과 연령에 한정되어 있음 ☞ 여성과 노인, 어린이 등의 경험 가시화를 통한 남녀노소의 경험이 다양하게 재현되도록 개선 필요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5	4·3평화 공원	콘텐츠	  6·25 때 쯤에서 우리 언니네가 서문통에서 고우신 장사를 했는데 그 삼점에 앉아서 비행장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걸 봤어. 차 8대로 실어나르는 걸 말이야. 그건 잊어버려지지 않아. 시각은 밝은 때 사람들 죽이려고 광목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비행장 쪽으로 싣고가는 걸 봤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비행장에서 800명을 죽여버렸다고 했어. 추순선(여, 당시 23세) **<4·3사건 70주년 기념 책자 "4·3이 머우꽈?">**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4·3사건 70주년 기념 책자 '4·3이 머우꽈?'의 피해사례 중 여성 피해자의 증언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4·3 당시 성인 남성의 희생이 다수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피해 경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있으므로 다양한 피해사례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는 4·3의 피해 경험과 역사를 보다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따라서 향후 여성 및 다양한 후세대의 경험에 주목한 피해사례 조사 및 연구와 이를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함 ☞ 4·3 피해 경험을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하게 제시
6	김만덕 기념관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세상에 나눔의 빛을 밝힌 사람들>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김만덕과 같이 세상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을 재조명하고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도를 지닌 <세상에 나눔의 빛을 밝힌 사람들> 전시관. 국내 사례: 이태석 신부, 최귀동, 이회영, 경주 최부자집, 국외 사례: 테레사 수녀, 록펠러, 슈바이처, 카네기, 빌 게이츠. 전체 10명 중 여성은 테레사 수녀 1명임. 김만덕 선생의 사상을 실천한 여성 인물 확대 발굴 필요 ☞ 봉사영역과 경제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제주 여성 인물 발굴·전시 확대(예: 평생 동안 교육과 의료 봉사를 실천한 제주의 최정숙선생, 여성 CEO 발굴)
7	세계자연유산센터	콘텐츠	 <국제홍보관 게시판>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세계자연유산센터 국제홍보관의 사진기록물. 전반적으로 남성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음.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호 및 세계 환경 질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모두 남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환경 분야의 국제적인 다양한 활동에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 다양한 계층(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물과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8	기당미술관	콘텐츠	 <행사홍보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서귀포문화시민클럽' 행사 홍보 배너.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임에도 관련 이미지는 여성 인물로 구성됨. 이는 문화예술 분야는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배제할 수 있음으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 프로그램 홍보물에 인물 이미지 사용 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인물 이미지로 개선
9	서복전시관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기관 홍보 게시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서복전시관을 홍보하는 게시판. 해당 전시물은 기관의 주요 행사와 연혁을 소개한 게시물로 전체적으로 남성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음. 서복전시관은 서복과 서귀포의 지명유래와 관련된 전시관으로 남성 중심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음. 향후 기관 행사 참가자들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시기획을 추진할 필요 있음 ☞ 다양한 계층(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물과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10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콘텐츠	 <국내외 천문학자에 대한 전시물>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2층 전시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한국의 천문학자와 세계의 천문학자 7인의 성별은 모두 남성임. 천문학은 남성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여성천문학자 발굴 전시 등 개선 필요(예: 여성 최초의 천문학자 캐럴라인 허셜(1750~1848, 영국) 등을 추가)

마. 기타

○ 성인지적 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콘텐츠 전반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제주여성역사문화 관련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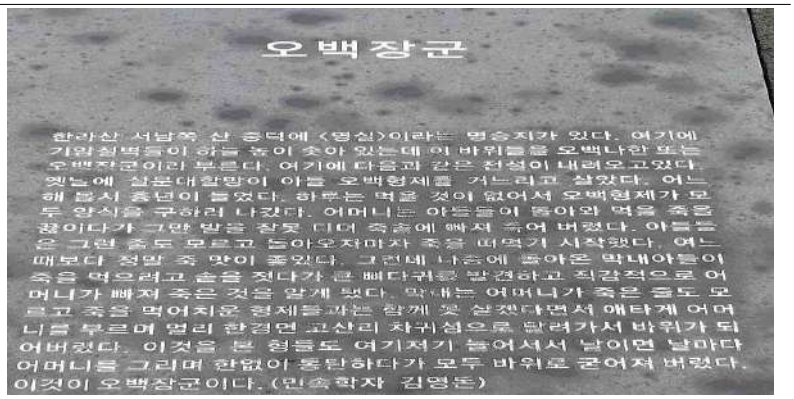
○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전반에 남성 중심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하면, 제주 여성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제주 여성은 어머니 역할로 재현되는 경향이 강하였음. 구체적으로 제주항일운동과 제주4·3사건 등 제주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여성인물 및 경험을 다룬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고, 관련 콘텐츠의 내용도 매우 획일화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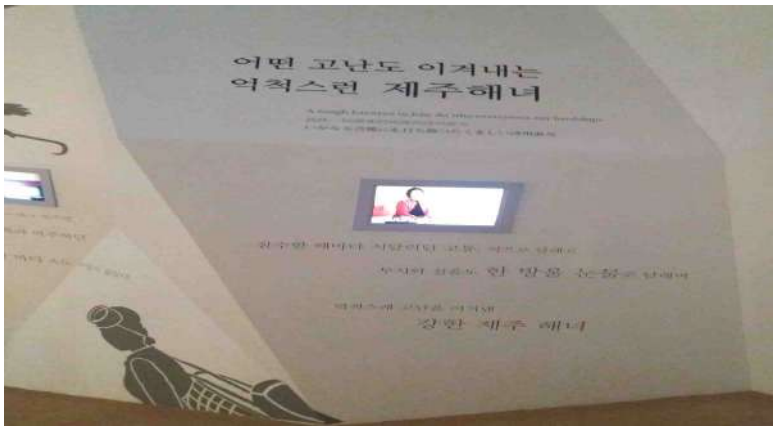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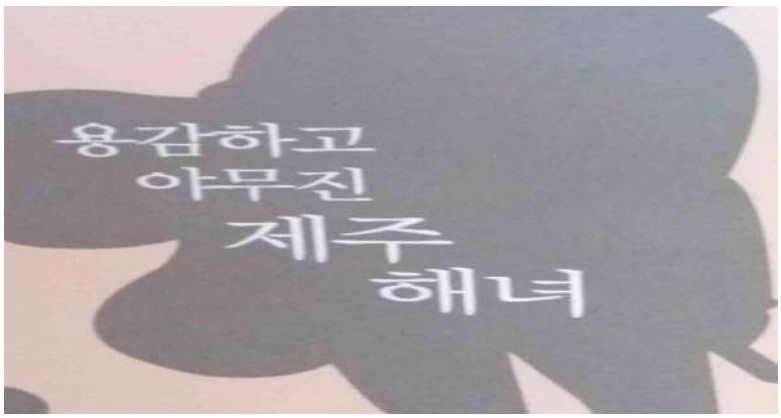
○ 제주4·3사건, 항일운동, 해녀, 설문대할망 등 제주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신화 속 제주 여성은 공통적으로 '어머니로서 제주여성의 강인함'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제주 여성의 모성 숭배는 역사적으로 제주 여성의 희생과 피해자화로 연결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제주 여성들의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어머니 역할로 축소하는 성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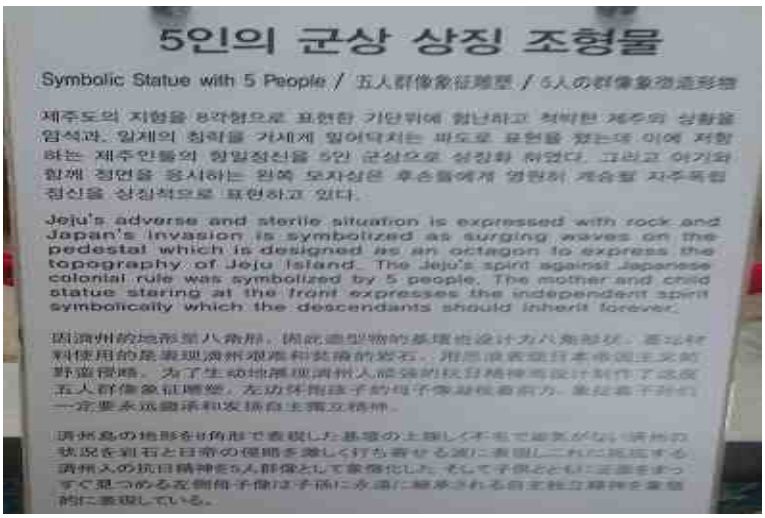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역사문화 재현 시 지역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제주4·3사건 당시 여성들의 피해 사례 및 4·3사건 이후 마을 재건 과정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살려낸 제주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콘텐츠와 일제하에서 해녀들의 항일운동 및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콘텐츠 발굴·전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주 여성의 모성 숭배와 희생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2〉 제주 여성의 모성과 희생 주제의 콘텐츠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1	제주4·3 평화공원	콘텐츠	 상-<전시실 입구> 4·3 홍보물/중-야외 작품 '비설'/ 하-'청소년4·3문예공모' 수상작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4·3 홍보물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여성 표상. 4·3의 희생자이면서 피해자 유가족을 표현하는 젠더이미지는 주로 여성임. 얼어 죽은 모녀를 모티브로 재현한 작품.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전시물이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기획되어 있는 반면 여성이 등장하는 전시물은 극한의 장소에서 희생된 여성으로 그려짐. 특히, 이처럼 어머니이자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희생자로서 여성 이미지가 4·3 홍보물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여성 이미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4·3문예공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4·3의 현대적 의미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제주 여성의 고정된 성역할 및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한 전시물 확대 필요
2	돌문화 공원	콘텐츠	 **<(위)오백장군과 (아래)설문대할망의 죽음에 대한 전설>**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설화를 주제로 조성된 공원임. 해당 콘텐츠는 설문대할망의 죽음과 오백장군의 전설에 대한 해설문임. 설문대할망의 죽음에 관한 두 가지 전설 - ① 큰 키를 자랑하다가(시험해보다가)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 ② 자식을 위해 끓이던 '죽솥'에 빠져죽었다-이 있으나, 돌문화공원의 대부분의 전시물들은 후자의 전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다시 말해, 제주의 대자연을 창조하고 가꾸었던 설문대할망의 창조정신(제주특별자치도, 2009)은 주변화되고 설문대할망의 '지극한 모성애'와 아들들(오백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는 장소라고 느껴짐. 그러나 설문대할망의 '모성애'에 관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조 스토리가 함께 전해질 때 설문대할망 전설은 더욱 풍부하고 매력적인 역사문화자원이 될 것임 ☞ 설문대할망의 죽음 및 제주를 만들어낸 다양한 창조 스토리에 대한 코텐츠를 개발하고 활발한 유통 방안 마련이 필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설문대할망관'에 사전 적용 필요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3	해녀 박물관	콘텐츠	   **<전시실> 해녀의 생애에 관한 표현 문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해녀'를 바라보는 프레임 : 모성, 가족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해석틀. 후대에 와서도 해녀에 대한 가치와 교훈은 '모성이 강한 여성', '생활력이 강한 여성'으로만 평가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통해 부여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여성은 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져도 그저 누군가의 엄마일 뿐 그 이상은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줌. 기존 '해녀'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함 ☞ 해녀에 대한 기존 프레임, '모성', '가족'의 틀에서 '지역사회의 공헌자',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전환. 해녀 자기 자신,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 역할 재조명 필요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4	제주항일 기념관	콘텐츠	  <5인 군상 상징 조형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인들의 항일정신을 상징하는 '5인 군상 상징 조형물'. 제주인을 상징하는 5인은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남자아기와 아기를 안은 성인 여성(어머니)으로 구성됨. 남자아기와 아기를 안은 여성은 각각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한쌍인 '모자상'으로 존재하며 후손들에게 전승될 자주독립의 상징이라고 표현됨. 제주 여성은 아이와 함께 하는 어머니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들의 어머니'일 때 더욱 모성이 지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음. 아들과 제주어머니의 관계는 제주지역의 성별 체계 및 위계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남녀노소 독립적인 주체로서 다양한 제주인의 모습으로 개선 필요 ※ 아래는 같은 공간에 위치한, 남녀노소 전 국민이 함께 나라를 지켜낸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 재현 시 나타나는 남성 중심성(여성의 어머니화)의 한계를 넘어서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에 주목한 사례

구분	관광지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기념관 입구에 위치한 '함성상'>

2) 역사문화해설

❍ 이와 같은 문제는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설사들의 해설에도 나타남. 전반적으로 지역여성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해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설의 근거가 빈약하고 자의적인 해설이 이루어지거나 성차별적인 해설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해설사의 해설 역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및 성인지적 관점의 해설 부재

- 사례 1: 제주여성의 독립운동(해녀항일운동, 여성항일운동가 등)에 대한 전시물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해녀항일운동을 생존권 운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
- 사례 2: 미술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여성 누드화에 대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의 해설이 부재함. 현실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세계와 작품(예술) 세계의 차이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해설이 필요함

❍ 성차별적 관점의 해설

- 역사적인 여성 인물 관련 콘텐츠에 대한 해설 시, 해당 인물의 사회적 역할 및 활동이 갖는 의의에 주목하기보다는 여성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할망(할머니) 등 사적 관계의 여성 역할에 국한된 용어를 사용함(김만덕 할망(할머니), "김만덕은 여성으로서~")
- 4·3 등 역사적 사건의 성적 폭력 상황에 대해 "~건드렸다", 연애 상황에 대해 "~꼬셨다" 등,

역사적 사건을 사소화하거나 희화화하는 등 부적절하게 표현(4·3 당시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무장대, 경찰대 등이 여성들을 건드렸다", 이중섭의 연애담에 대해 "까도남인 이중섭을 마사꼬가 먼저 달려들어 미치도록 꼬셨다" 등)

○ 근거 기반 및 맥락적 해설 부족, 자의에 의한 해설

- 사례 1: 삼별초가 여몽 연합군에게 패할 당시 항파두리 안에서 아이들과 부녀자 1300여 명이 납치-몰살당했다고 해설. 이에 대한 근거 제공 없음
- 사례 2: 제주에 유배 온 인물과 '족은각시'에 대한 해설. 제주 사람들은 자신의 딸이 유배인의 첩 즉 '족은각시'가 되는 것을 좋아했으며, 육지의 첩은 '호강각시'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호강하는 각시이나 제주의 '족은각시'는 주로 남편이 바다에서 죽는 경우가 많아 홀로 됐을 경우 주변 남성들로부터 보호해 줄 새로운 남편을 두었다고 함. 새 남편은 같이 살지도 않고 "가끔씩 집에 들르면 고맙다고 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먹여 보냈다"고 해설. 과거 일부다처제 시절 제주도의 가족형태/혼인관계는 육지부와는 확연히 다르기는 하나 위의 내용은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과 홀로 사는 여성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위와 같은 해설은 제주 여성의 지위를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으므로 제주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설 필요함

3.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광지별로 살펴보면(<표 3-13>), 모니터링 대상 관광지 28곳 중 성차별적 콘텐츠가 발견된 관광지가 16곳(57%)으로 절반 이상의 관광지에 성차별적인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차별적 콘텐츠가 발견된 관광지 16곳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공영관광지는 22곳 중 12곳(55%), 기타 관광지는 6곳 중 4곳(67%)임
- 성차별적인 콘텐츠 35개 중 공영관광지에서 19개, 기타 관광지에서 16개 나타남
- 요컨대, 공영관광지보다 민영 또는 기타 운영주체가 다른 관광지에서 성차별 콘텐츠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나타남. 기타 관광지는 '러브랜드'와 '건강과성박물관' 등 민영관광지와 국립제주박물관과 교육박물관 등 문광부 및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로, 공영관광지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다양한 제주지역 관광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3-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연번	관광지명	성차별적 콘텐츠 유형(개)	관광지유형	관리 주체
1	국제평화센터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전시 · 박물관형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2	제주도립미술관		전시 · 박물관형	도 제주도립미술관
3	민속자연사박물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2)	전시 · 박물관형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4	제주돌문화공원		역사문화자원형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5	제주해녀박물관		역사문화자원형	도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6	항일기념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1) · 성별 대표성 불균형(2)	역사문화자원형	도 보훈청
7	현대미술관		전시 · 박물관형	도 도립미술관
8	김창열미술관		전시 · 박물관형	도 도립미술관
9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 성 차별적 표현/비하(1)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전시 · 박물관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0	제주목관아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1	삼양동선사유적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2	항몽유적지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3	제주추사관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4	제주4·3평화공원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2)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역사문화자원형	도 특별자치행정국 4 · 3지원과(민간위탁)
15	김만덕기념관	· 성 차별적 표현/비하(1)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역사문화자원형	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민간위탁)
16	김만덕객주		역사문화자원형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17	성읍민속마을		역사문화자원형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18	이중섭미술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1)	전시 · 박물관형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19	기당미술관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전시 · 박물관형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20	서복전시관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역사문화자원형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21	서귀포감귤박물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1)	전시 · 박물관형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관리소
22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 성별 대표성 불균형(1)	전시 · 박물관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23	러브랜드	· 성 차별적 표현/비하(1)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1)	기타	민간
24	건강과성박물관	· 성 차별적 표현/비하(2)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3)	기타	민간

연번	관광지명	성차별적 콘텐츠 유형(개)	관광지유형	관리 주체
25	삼성혈		기타	삼성사재단
26	혼인지		기타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27	국립제주박물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4)	기타	국립제주박물관 (문광부)
28	교육박물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3) · 성 차별적 표현/비하(2)	기타	도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시 별빛누리공원은 내부 시설 개선 공사로 대상에서 제외
** 관광지 관리주체(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9년 10월. 현재)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관광지 28개소의 전시물과 홍보물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모니터링 결과를 지표별로 분석한 결과, 성차별적인 콘텐츠에 해당하는 사례는 전체 35개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과 ‘성별 대표성 불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반영된 사례(14개)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 사례’ 9개
  ·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한 사례’ 4개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례’ 1개
- ‘성차별적 표현 및 비하’에 해당하는 사례(7개)
  ·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 3개
  ·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 사례’ 3개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례’ 1개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해당하는 사례(4개)
- ‘성별 대표성 불균형’에 해당하는 사례(10개)

○ 제주특별자치도 성차별적 관광 콘텐츠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성평등 개선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학습용 콘텐츠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사례는 '지역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학습용 콘텐츠'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남(예: 제주어학습)

○ 제주지역의 노동,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 특히, 교육과 학습용 콘텐츠의 주요 수요층인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생소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체험 및 공모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하고 있는 사례는 '체험 및 공모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나타남(예: '항일기념 만세체험', '갈옷입기체험', 가족 대상 공모 프로그램).

○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이미지는 관람객들에게 특정유형의 가족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다양한 관람객의 요구 반영과 정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객 성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적 행위 및 담론 관련 콘텐츠

○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사례' 등은 '성적 행위 및 담론 관련 콘텐츠'에서 나타남(예: 민영관광지인 '러브랜드'와 '건강과 성박물관'의 콘텐츠)

○ 해당 콘텐츠에서는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왜곡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성매매 등의 젠더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음. 향후 성(sexuality)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면 수정이 필요함

□ 김만덕, 해녀, 자청비(여성신화) 등 여성 관련 콘텐츠

○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 사례'는 '김만덕, 해녀, 자청비(여성신화) 등 여성 관련 콘텐츠'에서 나타남

○ 특정 성, 특히 여성의 외모 언급이나 강조는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을 외모나 몸에 한정 짓는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김만덕, 해녀, 여성신화 등이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과 의의에 주목하여 관련 콘텐츠의 개선이 필요함

□ 기관 홍보 리플렛 및 책자, 게시판 등의 인물 이미지 관련 콘텐츠

○ ‘성별 대표성 불균형 사례’는 ‘기관 홍보 리플렛 및 책자, 게시판 등의 인물 이미지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콘텐츠는 기관의 특성 및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성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평화와 환경, 항일운동, 4·3사건 등 역사 관련 관광지는 주로 중년층 이상의 남성 인물 중심 콘텐츠가 많았으며, 김만덕기념관, 문화프로그램 등의 경우는 여성 중심 콘텐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위와 같은 성별화 경향은 평화, 환경, 역사 관련 분야는 남성 중심 영역이고 반면 여성역사인물을 다루거나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여성 중심 영역이라는 성별화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그동안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다양한 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다양한 연령, 계층, 성별 등을 고려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타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콘텐츠 전반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여성역사문화 관련 콘텐츠: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전반에 남성 중심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하면, 제주 여성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제주 여성은 어머니 역할로 재현되는 경향이 강하였음
- 역사문화해설: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설사들의 해설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남. 전반적으로 지역여성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해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설의 근거가 빈약하고 자의적인 해설이 이루어지거나 성차별적인 해설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해설사의 해설 역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광지별로 살펴보면, 성차별적 콘텐츠가 발견된 관광지가 16곳(57%)으로 절반 이상의 관광지에 성차별적인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개입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공영관광지보다 민영 또는 기타 운영 주체가 다른 관광지에서 성차별 콘텐츠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나타나, 공영관광지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다양한 제주지역 관광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리하면,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제 4 장

결 론

1. 주요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성평등 정책 개선안

1. 주요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관광분야의 젠더 이슈 중 관광지에서 생산·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관광 콘텐츠 관련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의 '관광 콘텐츠'란 '제주지역 관광지의 전시물 및 홍보물'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제주지역의 역사문화 및 젠더 이슈와의 관련성이 높은 관광지에 한하여 살펴보았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공영관광지 중 역사·문화자원 및 전시·박물관형 관광지를 중심으로 살펴봄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제주지역 주요 관광지 콘텐츠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제주 도내·외 관계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병행하였음. 이에 따른 주요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지역 문화·관광정책 분야 성평등 네트워크 및 젠더 이슈 발굴

○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주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 도정 및 지역사회에서 문화·관광분야의 젠더 이슈는 주요하게 부각되지 못하였음.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관련 정책 및 문헌 분석과 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문화·관광정책분야 및 지역역사문화 관련 분야의 젠더 이슈를 살펴보고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음

○ 주요 성과로는 제주지역 문화·관광분야의 성평등 정책개선 필요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제주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 등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인지적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되었음

○ 아울러 본 연구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제주지역의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성평등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련 분야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성평등 이슈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점검 체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성인지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모니터링 대상 관광지의 절반 이상에서 성차별적인 콘텐츠가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 이러한 사실은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관광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콘텐츠에 적용하기 적합한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해당 지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관광지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가 다양한 다수의 관광지에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지표는 기존에 개발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점검 지표(여성가족부, 2019)'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음. 기존 모니터링 지표를 바탕으로 실제 관광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전시물 및 홍보물 등 관광 콘텐츠에 적용하기 위한 점검 지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 방향 및 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

- 개발 방향: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전시물 및 홍보물에 대한 기획 및 이행 과정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긍정성이 가미된 지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구체성, 명확성, 긍정성)

- 주요 활용 기관 및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문화정책과, 성평등정책관 등 관계 공무원, 용역 관계자, 자문위원 및 모니터링단 등 민간 전문가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및 도에 등록된 미술관 및 박물관(관계자)
  · 문화관광해설사(관광가이드) 및 학예사 등

- 지표 내용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점검 지표는 4개 영역, 5개 지표로 구성됨
  · 기존 모니터링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콘텐츠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 2개의 지표를 개발하였고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 각 영역에서 1개의 지표를 개발함

<표 4-1> 기존 모니터링 지표와 개선 지표 비교

기존 모니터링 지표		개선 지표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위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있는가? -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 지역역사문화 관련 및 기타 교육·홍보용 콘텐츠 제작 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가? • 체험 및 공모프로그램 기획·홍보 시, 다양한 가족과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 성 차별적 표현/비하 - 성 차별적 이미지 및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특정 성과 연관시켜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 인물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가?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 전시물 및 홍보물에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 성별 대표성 불균형 - 특정 성별 또는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 기관 홍보물 및 게시물 제작 시, 인물 이미지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 성평등 관광 콘텐츠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 방안은 다음 절에서 제시하였음. 향후 앞에서 제시한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문화·관광정책 관계자의 성평등 역량 강화 및 기초 연구 강화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주지역 문화·관광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주요 주체로서 콘텐츠 기획자(담당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와 자문위원, 문화관광해설사(관광가이드) 등 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추진한 관광지의 모니터링 결과 또한 이 같은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무엇보다, 관광지에서 발견된 다수의 성차별적인 콘텐츠의 존재는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성평등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

○ 아울러 이러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성평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실제 각 관광지의 문화관광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여성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해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한 성차별적인 해설 사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과정에 성인지 교과목이 신설·추진된 바 있음

○ 끝으로 문화·관광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지역역사문화자원과 콘텐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 여성과 젠더 관점의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향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2.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 관련 성평등 정책 개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의 형태로 통보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9)

○ 이와 같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제고를 위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제도와 함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권고제'를 접목하여 실시함으로써 각 제도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정책권고제'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이 추진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해 추진방법, 추진내용, 관련 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개선), 이행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임(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향후 본 연구에서 마련된 정책 개선안들을 '성평등정책권고제'를 활용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을 제안함

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적 관광 콘텐츠 사전 · 이행점검체계 구축

□ 개선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다수의 관광지에서 성차별적인 콘텐츠가 전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개입을 위한 체계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행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적 관광 콘텐츠에 대한 사전·이해점검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개선안

○ 추진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1) 사전 점검(자체점검)

○ 점검 주체

- 사업 담당공무원, 학예사 등

※ 담당공무원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용역 위탁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성평등 관광 콘텐츠 자체점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단품 콘텐츠 제작 시에는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여성가족부, 2019)'를 활용할 수 있음

○ 점검 내용 및 방식

- 전시물 및 홍보물 등 관광 콘텐츠 기획 시 자체점검 실시

〈표 4-2〉 성평등 관광 콘텐츠 기획을 위한 사전 자체점검표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1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① 지역역사문화 관련 및 기타 교육·홍보용 콘텐츠 제작 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가?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예 시] ▸ (주역할)여성은 요리, 청소, 육아 등 가사와 육아 돌봄 역할을 하는 사람, 남성은 직업 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사람 ▸ (직업)남성은 관리직, 사회지도층 등 주요 역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 ▸ (취미)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지역역사문화) 남성의 경험은 중요하고 비중 있게, 여성의 경험은 드러나지 않거나 부수적으로 재현		
	② 체험 및 공모프로그램 기획·홍보 시, 다양한 가족과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예 시] ▸ 가족이나 관람객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로 구성된 이미지 지양, 다양한 세대, 가족, 체형 등을 고려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2 성차별적 표현 및 비하	① 인물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가? [예 시]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쭉쭉빵빵 등, 뚱뚱한 몸을 희화화, 또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하는 표현 ▸ 해당 인물 및 상황과 연관성이 없으면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 등장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① 전시물 및 홍보물에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예 시] ▸ 가정-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성매매 등 젠더폭력을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이나 사소한 문제로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4 성별 대표성 불균형	① 기관 홍보물 및 게시물 제작 시, 인물 이미지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예 시] ▸ 돌봄 및 상담 제공자, 판매 홍보, 문화프로그램 홍보에 여성을 주로 표현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및 스포츠, 게임 홍보에는 남성을 표현 ▸ 노동, 과학, 외교, 정치, 평화, 환경, 역사, 문화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전시 또는 홍보하면서 특정 성별로만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2) 이행 점검(모니터링단 점검)

❍ 점검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여성친화도시 담당공무원 및 모니터링단 등)

❍ 점검 내용 및 방식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과 전문가 매칭을 통한 관광 콘텐츠 성평등 이행 모니터링 추진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활성화)

〈표 4-3〉 성평등 관광 콘텐츠 이행 모니터링 점검표

관광지명 (프로그램명)				
유형 (중복체크가능)	□ 전시물 □ 홍보물 □ 해설(스토리, 안내자) □ 기타( )			
소관 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결과(이미지, 카피 등)	
1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① 지역역사문화 관련 및 기타 교육·홍보용 콘텐츠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가? [예 시] ▸ (주역할)여성은 요리, 청소, 육아 등 가사와 육아 돌봄 역할을 하는 사람, 남성은 직업 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사람 ▸ (직업)남성은 관리직, 사회지도층 등 주요 역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 ▸ (취미)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지역역사문화) 남성의 경험은 중요하고 비중 있게, 여성의 경험은 드러나지 않거나 부수적으로 재현			
	② 체험 및 공모프로그램 콘텐츠에 다양한 가족과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예 시] ▸ 가족이나 관람객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로 구성된 이미지 지양, 다양한 세대, 가족, 체형 등을 고려			
2 성 차별적 표현 및 비하	① 인물 관련 콘텐츠에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가? [예 시]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쭉쭉빵빵 등, 뚱뚱한 몸을 희화화, 또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하는 표현 ▸ 해당 인물 및 상황과 연관성이 없으면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 등장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① 전시물 및 홍보물에 성적인 폭력 또는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가? [예 시] ▸ 가정-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성매매 등 젠더폭력을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이나 사소한 문제로 표현			
4 성별 대표성 불균형	① 기관 홍보물 및 게시물의 인물 이미지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예 시] ▸ 돌봄 및 상담 제공자, 판매 홍보, 문화프로그램 홍보에 여성을 주로 표현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및 스포츠, 게임 홍보에는 남성을 표현 ▸ 노동, 과학, 외교, 정치, 평화, 환경, 역사, 문화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전시 또는 홍보하면서 특정 성별로만 표현			

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평가 시, 성인지적 평가 지표 반영

□ 개선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영관광지는 제주의 역사, 문화, 예술 위주로 개발·운영(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학회, 2019)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를 널리 알리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도내 공영관광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으 위하여 매해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기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평가에 성인지적 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시 해당 관광지의 전시물과 프로그램에 성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둘째, 콘텐츠 기획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평등 개선 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음. 이때 그 판단 근거로써 앞에서 제시된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 지표를 참고할 수 있음

□ 개선안

1) 관련 조례 개정

○ 추진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추진 내용 및 방법

- 성인지적 관광지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개정

주요 조항	개선 내용
·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영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 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성별 균형 참여>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주요 조항	개선 내용
·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광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 특성 반영>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시 성별 특성 반영

2) 평가 방법 및 내용 개선

○ 기존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평가방법(2019년 기준)[16)]

- 추진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관광협회
- 평가주기: 연 1회
- 평가위원: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평가방법

계	서면평가		암행평가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실적	심의		
100%	30%	20%	30%	20%

- 평가지표 및 배점
  - · 실적평가(30%)

총 점	환대 서비스	입장객 수	세외수입	정보제공	공공성 확보
100	20	20	30	15	15

  - · 심의평가(20%)

총 점	콘텐츠기획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	지역 연계성	운영개선 노력
100	30	30	20	20

  - · 암행평가(30%)

총 점	환 대 서비스	근무자 자세	콘텐츠 운영	시설이용 편의성	관광지 관리 상태 및 청결도	정보제공
100	20	10	15	20	25	10

  - · 관광객 만족도 조사(20%): 주중, 주말 방문객을 구분하여 1:1 개별면접 조사

1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내부자료(2019)

○ 성인지적 평가 지표 반영 방안

① 관광지 평가를 위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련 문항 반영

기존 만족도 조사의 주요 내용	보완 내용
· 도내 공영관광지 방문경험 관련 (방문횟수, 동행인, 이용 교통수단 등) · 도내 공영관광지 충성도/만족도 관련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향 등) · 도내 공영관광지 방문 만족도 관련 (매력·흥미, 독특성, 볼거리, 즐길 거리 관련) · 기타 관광지 개선 의견 사항 및 응답자 일반 현황 등	전시물(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성 차별적인 내용 또는 특정 성을 비하하는 내용 여부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 지표 참고

② 콘탠츠 기획 및 운영 시, 성평등 개선 사례 가점 부여 및 평가 항목 반영

기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관련 평가 항목	보완 내용
· 운영 프로그램의 매력도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체 시책 추진 등	성인지적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체 시책 추진 여부 * 성평등 관광 콘텐츠 가이드 지표 참고

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성인지적 점검 기반 마련

□ 개선 필요성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광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적 콘텐츠가 발견된 관광지는 16곳으로 모니터링 대상지의 절반 이상의 관광지(57%)에서 성차별적인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립 또는 기타 운영 주체가 다른 관광지에서도 성차별적 콘텐츠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러브랜드'나 '건강과성박물관'과 같이 성(性)을 주제로 한 관광지에서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콘텐츠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 폭력과 관련된 콘텐츠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선안

○ '러브랜드'와 '건강과성박물관'은 사립 관광지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의해 등록·관리되고 있는 관광지임. 제주특별자치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사립, 대학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지원을 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3 제정)[17]. 따라서 공영관광지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다양한 제주지역 관광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지의 경우에도 제주도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추진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추진 내용 및 방법

- 성인지적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 개정

주요 조항	개선 내용
· 제5조(평가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인증을 신청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평가인증 신청 및 절차,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 특성 반영>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성별 특성 반영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전문가 2.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총 61개로 사립박물관 21개(건강과성박물관 포함), 사립미술관 13개(러브랜드 포함)임(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9년 10월 현재)

라. 문화·관광정책분야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성평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개선 필요성

○ 제주지역 관광지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결과, 콘텐츠 기획과 유통 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적용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성인지적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의 주요 주체인 관광 콘텐츠 기획자(담당공무원 및 용역관계자)와 자문위원, (공모전)심사위원, 문화관광해설사(관광가이드) 등 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성평등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자원 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선안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콘텐츠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 용역 관계자, 학예사,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등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성인지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콘텐츠를 유통하는 문화관광해설사[18] 및 관광가이드에 대한 성인지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문화·관광정책 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성인지교육 과정 신설 및 강화

○ 추진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인재개발원 등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제18조(성인지교육) 마련 중: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성인지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문화·관광정책 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과정 신설

18)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의 12)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동법 제48조의4)

<표 4-4> 문화관광정책 분야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 성인지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시간)	대상	시기
일반과정 (4시간)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2h) - 성별고정관념 찾기, 젠더 감수성 훈련 • 성인지정책과 문화·관광정책의 이해(2h)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인지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등 - 정책 개선 사례 등	문화·관광분야 전 직급 공무원 ·관계자	연중
담당자과정 (6시간)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2h) - 성별고정관념 찾기, 젠더 감수성 훈련 • 성인지정책과 문화·관광정책의 이해(2h)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인지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문화·관광정책 분야의 젠더 이슈 등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작성 실습(2h)	문화·관광분야 성인지정책 담당자	상반기 (성인지정책 대상 과제 선정 후, 과제 이행 전)

2)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보수교육과정 개선

❍ 추진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인재개발원 등

❍ 추진 근거

- "도지사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제19조(양성평등교육) 마련 중)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및 제8조 교육 및 평가 등(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 개선 내용

-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 및 보수 과정에 성인지적 교과목(성인지관점의 이해/ 성인지적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관광객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심리 이해 등) 신설
- 강의 콘텐츠: 제주4·3사건, 제주 여성의 독립운동, 제주의 문화 등 역사적 사건 및 지역문화 관련 지역 여성들의 경험과 인물의 역할, 성인지적 관점의 설문대 및 자청비 등 여성신화와 다양한 설화(예: 벽랑국 세공주 스토리 발굴·재조명)

〈표 4-5〉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보수교육과정 개선안

기존 양성과정		성인지 교과목 신설
신규(100시간)	보수(16~32시간)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 해설안내기법 4.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5. 컴퓨터 6. 안정관리 및 응급처치 7. 수화 8.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9.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1. 관광 트랜드와 문화해설사의 역할 2.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3. 해당관광지에 대한 전문지식 4. 관광객 특성 이해 - 관광객 유형별, 연령별 특성 및 심리 5. 지역 문화관광자원 - 지역문화재, 자연환경, 종교, 미술, 음식, 축제, 음악 등 6. 해설안내기법 - 해설시연(스피치기술,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작성 7. 해설서비스를 위한 SNS 활용 등 8. 기본소양교육 9. 이미지메이킹(복장, 용모 등 자기관리)	- 성인지관점의 이해 - 성인지적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 - 관광객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심리 이해

자료: 문화관광해설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7)

마. 성인지적 관점의 지역역사문화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활성화

□ 개선 필요성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에서 발견되는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는, 지금까지 성인지적 관점 또는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제주지역 관광 콘텐츠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 콘텐츠의 기초가 되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함

□ 개선안

○ 제주 여성 및 젠더 연구와 이에 기반 한 지역여성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작업이 필요함.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연구 주제 등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제주4·3사건, 해녀, 여성항일운동, 김만덕, 지역발전과 여성 등 제주의 역사문화, 여성인물 등에 대한 젠더 관점의 재해석 작업
- 신화, 유적지, 의례 및 축제 등 지역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및 재해석 작업
- 지역여성역사문화연구의 콘텐츠화를 위한 학계, 연구기관, 행정, 관광지 및 박물관, 문화단체, 기업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및 홍보 방안 마련

○ 아울러, 제주지역 여성의 삶 재조명 및 브랜드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19] 설치를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제주지역의 새로운 여성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생산의 중심으로서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 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센터에서는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특화된 연구 방향과 주제를 개발하고, 여성연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김은실, 2018, 정여진 외, 2018)

19)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정여진 외. 2018) '의 정책 제언을 참고 바람

참고문헌

강경숙・김민선(201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경숙・김희경・선민정(2019), 「지방의회 성인지예・결산 심사 안내서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경숙・안미정(2015), 「「제주 여성의 삶 :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김상남(2011), "우리나라 관광정책집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실(2018),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의의",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활성화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김진영(1995),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

노경혜・임혜경・임예슬(2018), 「경기도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경기상상캠퍼스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둘순・이솔・이현아・김보미(2016),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둘순・장윤선・이솔・김보미(2017),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숙・김효주・홍기원・김병권・정주연(2018), 「정부 부처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순덕・김영철(2013),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화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서영표(2017), "제주에서 사회학 하기 – 사회학의 존재이유 되찾기", 『탐라문화』 54, 67-104.

송재호・황경수・김의근・정승훈・신동일(2000),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기초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오상훈・박운정(2015), 「제주지역 관광조직의 기능과 역할 재편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문학과 지성사.

전영준(2018),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탐라문화」, 60, 165-193.

정민의・이웅규(2017),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 「한국도서연구」, 29(1), 1-20.

정승훈・송재호(2013), 「미래 관광환경 변화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 제주연구원.

정여진・고지영・문순덕・현혜경・기계형(2018),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임화순・김영민(2018), "중고등학생의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만족도 연구", 「교육과학연구」, 20(1), 79~97.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제주관광공사(2018), "2018 상반기 제주관광 트렌드 분석", 「제주관광 이슈포커스」, 3.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문화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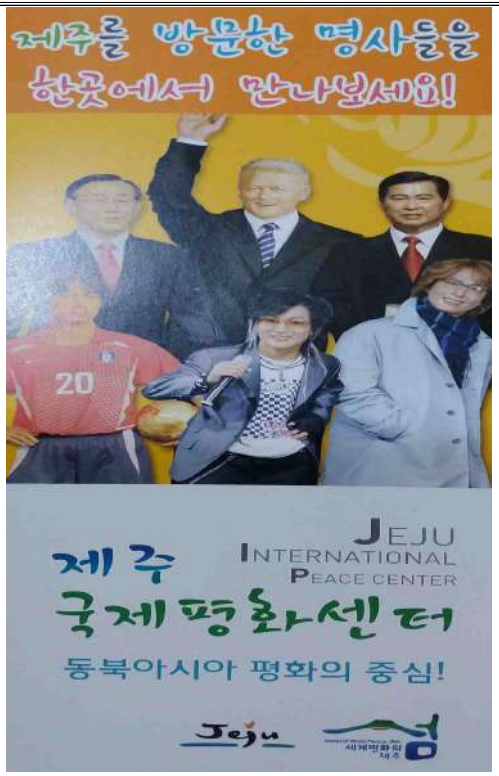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학회(2019),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 용역 보고서(2019~2023)」

부 록

관광지별 모니터링 결과

<국제평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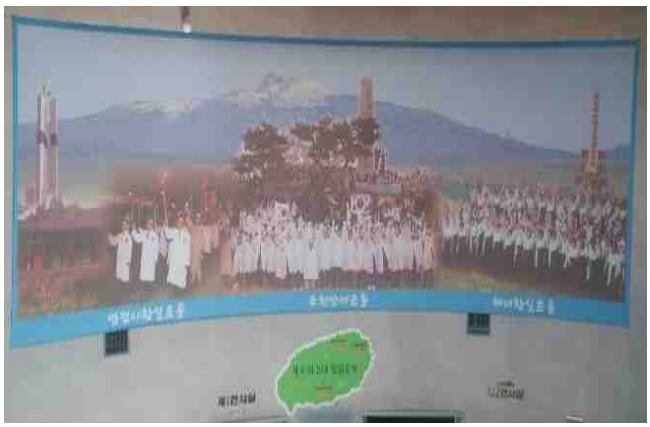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콘텐츠	 <리플렛> 표지 & 속지 내용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기관 홍보 리플렛. 앞면에는 밀랍인형으로 만들어진 남성 유명인들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속지 또한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 모두 유명 남성(CEO, 연예인, 정치인, 체육인 등)의 이미지로 구성됨. 남성 기업 CEO, 정치인, 축구감독, 연예인 등으로 배치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특정 위치에 있는 남성들의 이미지만 다루고 있어 다른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배제하고 있음 ☞ 다양한 계층(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물과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①	콘텐츠		 전시실 영상자료 <제주어 체험>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어 체험 전시실의 에니메이션 이미지. 여성은 렌터카 회사 직원, 시장 상인, 해녀, 관광객 등으로 그려지는 한편 남성은 관리인으로 이미지화됨. 특히 식당 종사자의 경우 여성만 앞치마를 두르고 있음(3번 사진). 여성은 보조적이거나 가사-돌봄과 밀접한 역할을 하고 남성은 관리인이나 안내인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이미지화하고 있어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애니메이션으로 개선 필요 ☞ 제주지역의 직업이나 활동에 대해 표현할 때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직업과 활동에서의 다양한 성별 배치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②	콘텐츠	 <갈옷입기 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갈옷입기 체험프로그램'임. 성인 남성과 여성, 어린 남성과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갈옷이 4벌 구비되어 있어, '부모+딸+아들'로 구성된 특정 가족을 연상하게 하며 실제로 다양한 관람객들이 체험하는 데 있어 체험복이 다양하지 않아 제약이 있음. 다양한 가족 및 구성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복을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람객의 다양한 세대 및 체형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크기의 갈옷 확대 비치

<항일기념관>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콘텐츠	 <만세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우리 가족은 독립운동가'라는 주제의 가족 대상 만세체험프로그램임. 안내배너 속 가족 이미지가'부모+딸+아들'로 이루어져 있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들이 배제를 경험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함 * 단, 실제 체험복은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사례임 ☞ 가족과 관람객의 다양성(다양한 연령과 성별 구성원 이미지)을 반영하여 이미지 개선
성별 대표성 불균형 ①	콘텐츠	 <전시실 정문 상단에 위치한 3대 항일운동 재현 행사>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의 3대 항일운동인 법정사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의 재현행사 사진 전시물. 3대 항일운동 중 해녀항일운동은 모두 여성 참가자로, 조천만세운동과 법정사항일운동 참가자는 모두 남성으로 성별화되어 있음. 특히, 조천만세운동과 법정사항일운동은 성별 구분 없이 참여했음에도 이를 재현하는 행사에서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항일운동 참여 경험에 대한 가시화 작업 필요 ☞ 항일운동 당시 여성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법정사항일운동과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전시물 및 이미지 활용
성별 대표성 불균형 ②	콘텐츠	 항일운동 관련 책자 <제주의 항일독립운동>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의 항일독립운동을 다룬 책자. 항일운동 재현행사 이미지를 다룬 표지를 보면 모두 남성으로 여성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항일운동 참여 경험에 대한 가시화 작업 필요 ☞ 항일운동 당시 여성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법정사항일운동과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전시물 및 이미지 활용

<세계자연유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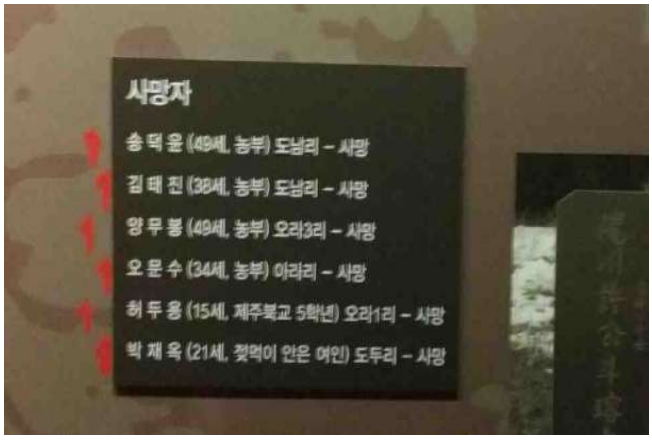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차별적 표현/비하	콘텐츠	 <4D영상: 위) '신들의 섬, 제주' 포스터, 아래) 자청비 이미지 장면(버스정류장 안내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자연유산 홍보 4D 영상물. '신들의 섬, 제주': 오백장군과 자청비가 등장하여 악으로부터 제주를 지키는 스토리 구성. 농경의 신인 자청비 캐릭터는 긴 머리에 꽃을 꽂고 날씬한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 등 외모와 몸매가 강조되어 있음. 자청비는 제주의 무속신화인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으로 풍요의 상징이자 남성에 기대기보다는 남성에 맞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행동하는 여성임(제주특별자치도, 2009). 해당 영상은 자청비 신화에 대한 이해 없이 자청비의 이미지를 섹슈얼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자청비 신화에 대한 해석 전반에 문제가 있음 ☞ 여성신화에 대한 재현 시 외모와 몸매가 부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엇보다 해당 신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및 스토리텔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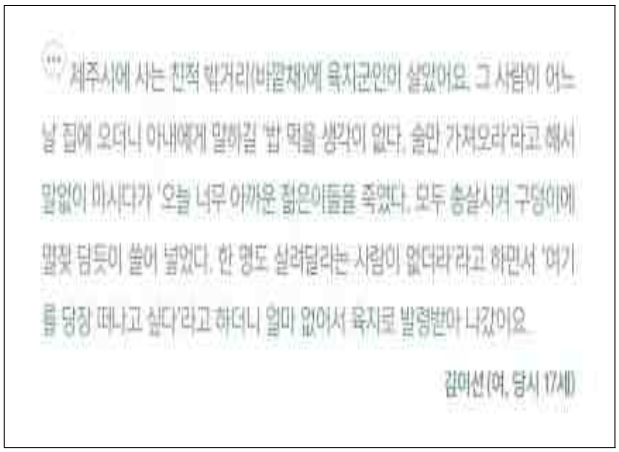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콘텐츠	 **<국제홍보관> 게시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세계자연유산센터 국제홍보관의 사진기록물. 전반적으로 남성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음.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호 및 세계 환경 질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모두 남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환경 분야의 국제적인 다양한 활동에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 다양한 계층(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물과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항몽유적지>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콘텐츠	 **<순의문(항파두리 입구) 옆 패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항파두리 입구의 안내문. 기록에는 삼별초가 제주로 내려올 당시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 항파두리성 안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되어있으나, 당시 상황을 재현한 인물 이미지는 대부분 남성으로 특정 성과 연령에 한정되어 있음 ☞ 여성과 노인, 어린이 등의 경험 가시화를 통한 남녀노소의 경험이 다양하게 재현되도록 개선 필요

<제주4·3평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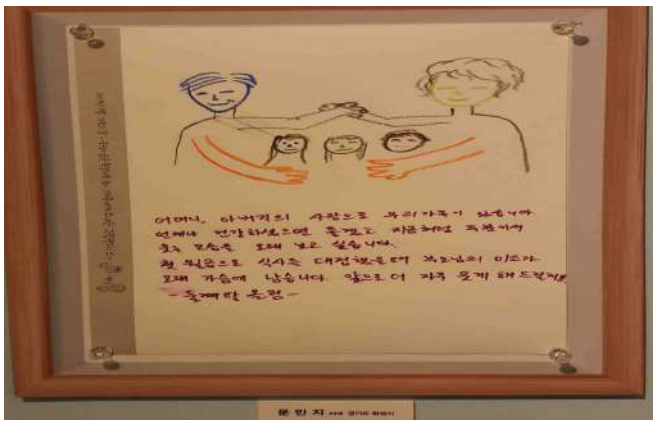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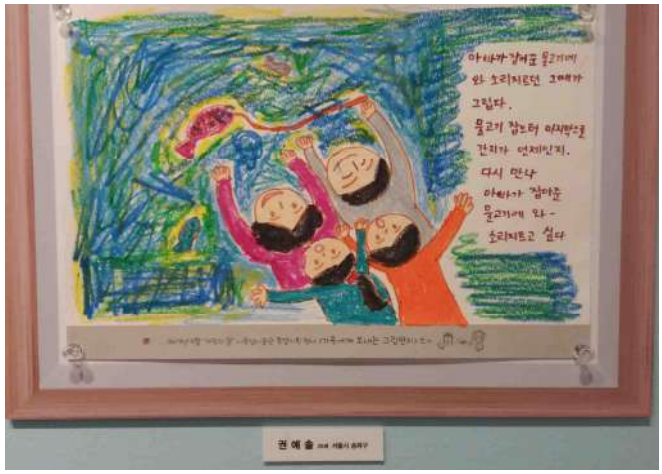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①	콘텐츠	  <3.1 발포 사건 상황에 관한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4·3 사건 발발의 계기가 된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사망한 민간인 6인 중 남성 5인의 직업(농부, 북교 5학년)은 기재되어 있으나 여성 사망자는 직업 없이 “젖먹이 안은 여성”으로 표현됨. 이는 여성은 ‘가족-돌봄’, 남성은 ‘생계부양’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 한 표현이며, 전통적으로 제주는 남녀노소 모두 생계부양에 동참해 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여성 사망자는 어머니이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으로 모두 표현할 필요 있음 ☞ 여성 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으로 ‘농부’ 등 직업을 함께 표현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②	콘텐츠	초가을이 되자 산부대의 식량조달이 곤란해져서 마을에서 약탈하거나 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마을의 어머니들, 주로 산부대에 가족이 있는 어머니들이 '오줌허벅'(비료용 소변을 담아 운반하는 통근 옹기항아리)에 보리나 조를 넣어 경비대의 감시 눈이 빛나고 있는 가운데를 지나 소변과 같이 뿌리고 돌아 갑니다. 그걸 산부대가 외서 밤에 긁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유대가 없으면 그런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산부대에 대한 공감은 그 정도로 강한 것이었어요. 김시홍 (당시 19세)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시에 사는 친척 밭거리(바깥채)에 육지군인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내에게 말하길 '밥 먹을 생각이 없다, 술만 가져오라'라고 해서 말없이 마시다가 '오늘 너무 아까운 젊은이들을 죽였다, 모두 총살시켜 구덩이에 몇첫 담듯이 쓸어 넣었다. 한 명도 살려달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여기를 당장 떠나고 싶다'라고 하더니 얼마 없어서 육지로 발령받아 나갔어요. 김이선(여, 당시 17세) **4·3사건 70주년 기념 책자 <4·3이 머우꽈?>의 피해사례**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4·3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여성 피해자만 성별을 표기하고 있음. 이는 남성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이 다양한 영역(언론,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음. 단순히 성별을 표기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른 경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증언자의 성별 표기를 남녀 모두 하거나 또는 모두 삭제
성별 대표성 불균형	콘텐츠	 **<4·3사건 70주년 기념 책자 "4·3이 머우꽈?">**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4·3사건 70주년 기념 책자 '4·3이 머우꽈?'의 피해사례 중 여성 피해자의 증언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4·3 당시 성인 남성의 희생이 다수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피해 경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있으므로 다양한 피해사례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는 4·3의 피해 경험과 역사를 보다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따라서 향후 여성 및 다양한 후세대의 경험에 주목한 피해사례 조사 및 연구와 이를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함 ☞ 4·3 피해 경험을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하게 제시

<김만덕기념관>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 차별적 표현/비하	콘텐츠	 <김만덕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상자료>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김만덕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 만덕이 마음에 든 한 대감이 관기로 있었던 만덕을 향해 "허허, 참 안타까운 일이야. 저런 미인이 이런 곳에 있다니"라고 표현. 김만덕의 생애 중 기녀로 있었던 짧은 시기와 외모에 대해 강조하는 측면이 있음. 이는 김만덕이 여성이라는 점, 기녀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표현이며 아울러 그의 삶의 의의를 축소할 수 있음.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시물의 경우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 필요 ☞ 특정 성, 특히 여성에 대한 외모 언급을 지양하고 후세대에 미치는 김만덕 생애의 의의에 주목하여 영상물 재현 개선 필요
성별 대표성 불균형	콘텐츠	 <세상에 나눔의 빛을 밝힌 사람들>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김만덕과 같이 세상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을 재조명하고 나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도를 지닌 <세상에 나눔의 빛을 밝힌 사람들> 전시관. 국내 사례: 이태석 신부, 최귀동, 이희영, 경주 최부자집, 국외 사례: 테레사 수녀, 록펠러, 슈바이처, 카네기, 빌 게이츠. 전체 10명 중 여성은 테레사 수녀 1명임. 김만덕 선생의 사상을 실천한 여성 인물 확대 발굴 필요 ☞ 봉사영역과 경제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제주 여성 인물 발굴·전시 확대 (예: 평생 동안 교육과 의료 봉사를 실천한 제주의 최정숙선생, 여성 CEO 발굴)

<이중섭미술관>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콘텐츠	  기획전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가족에 대한 그림편지를 전시한 특별기획전. 대부분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어, 일부 특정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편 국제결혼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실제 다양한 가족 형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다양한 가족 유형(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반영한 기획·전시

<기당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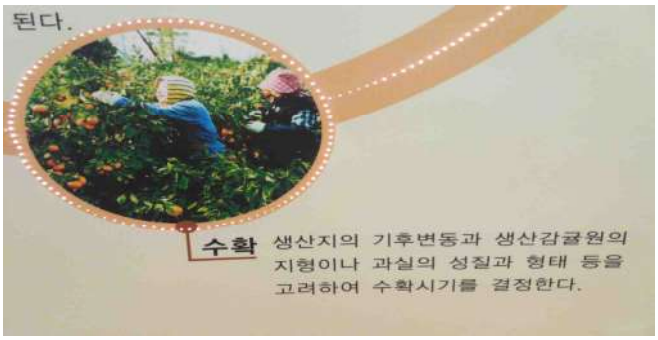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콘텐츠	 <행사홍보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서귀포문화시민클럽' 행사 홍보 배너.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임에도 관련 이미지는 여성 인물로 구성됨. 이는 문화예술 분야는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배제할 수 있음으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 프로그램 홍보물에 인물 이미지 사용 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인물 이미지로 개선

<서복전시관>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콘텐츠	 <기관 홍보 게시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서복전시관을 홍보하는 게시판. 해당 전시물은 기관의 주요 행사와 연혁을 소개한 게시물로 전체적으로 남성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음. 서복전시관은 서복과 서귀포의 지명유래와 관련된 전시관으로 남성 중심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음. 향후 기관 행사 참가자들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시기획을 추진할 필요 있음 ☞ 다양한 계층(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물과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서귀포감귤박물관>

<table>
<tr><th>평가 항목</th><th colspan="2">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th></tr>
<tr><td rowspan="2">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td><td>콘텐츠</td><td>



<상설전시실> 감귤농업의 과정</td></tr>
<tr><td>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td><td>감귤농사의 과정에 관한 전시물. 명확하고 정형화된 성별분업의 이미지를 보여줌. 구체적으로 남성은 묘목 심기, 방제, 수송 및 유통 등 감귤농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여성은 감귤 수확 및 선과 등 특정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짐. 육체적인 힘을 많이 쓰는 묘목 심기 및 감귤 나르기 등은 남성의 역할로서 남성이 선호되기는 하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업무가 이루어짐. 이는 고정되고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전시물로서 실제 농촌에서 남녀노소 함께 일손을 돕는 이미지로 개선 필요
☞ 감귤농사 전 과정에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미지 반영하여 수정</td></tr>
</table>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콘텐츠	 <국내외 천문학자에 대한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2층 전시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한국의 천문학자와 세계의 천문학자 7인의 성별은 모두 남성임. 천문학은 남성 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여성천문학자 발굴 전시 등 개선 필요. (예: 여성 최초의 천문학자 캐럴라인 허셜 (1750~1848, 영국) 등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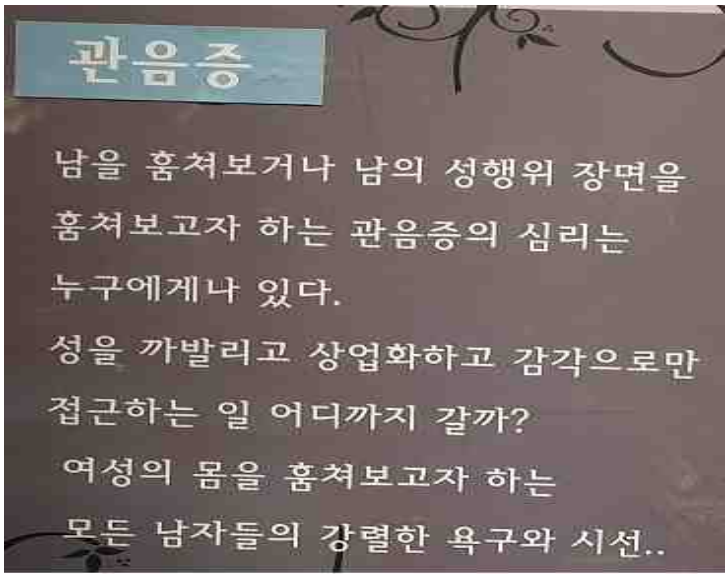
<러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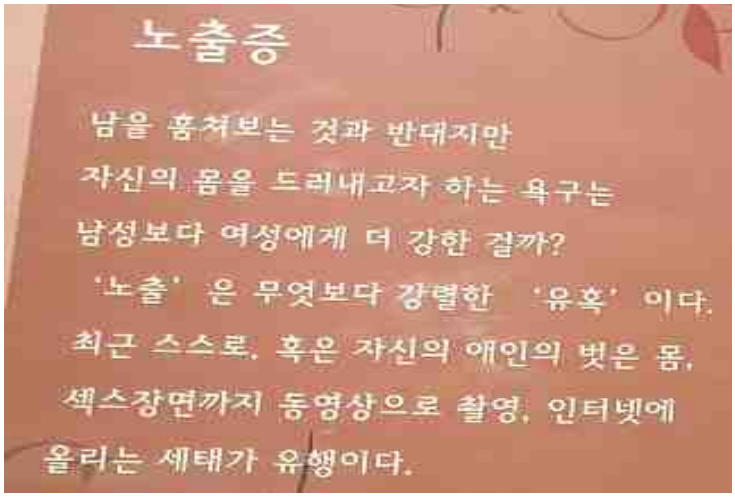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 차별적 표현/비하	콘텐츠	 <피학적 여성 피규어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고 피학적으로 구성된 여성 피규어 전시물.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모습의 피규어가 많아 젠더 폭력 및 범죄를 연상케 함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폐쇄 등 조치 필요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콘텐츠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디마리오 전시관 <성에 대한 발칙한 상상>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에 대한 발칙한 상상"이라는 주제의 디마리오 전시관. 성에 관한 재미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치마 속 및 여성 화장실을 몰래 보는 모습의 디오라마와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행위를 단순한 흥밋거리를 표현하고 있음. 성적인 폭력과 범죄를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어 매우 문제적임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폐쇄 등 조치 필요

<건강과성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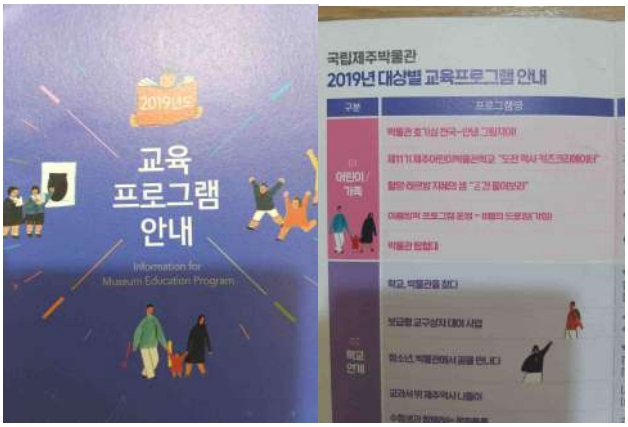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 차별적 표현/비하①	콘텐츠	 **전시물 <성지식에 관한 ○× 퀴즈>**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지식에 관한 ○× 퀴즈를 통해 성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의도의 전시물. 키스와 성병의 상관관계에 관한 상황을 재현하면서, 술집과 같은 장소에 여성과 남성 두 사람이 등장하고 야한 옷을 입은 여성을 바라보며 한 남성이 "나 저 애랑 키스했는데 혹시 성병 걱정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함. 이는 성병은 여성 특히 '술집에 있는', '섹시한'여성들이 매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여성들에 대한 성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면 수정 필요
성 차별적 표현/비하②	콘텐츠	 **전시물 <성병의 종류>**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병의 종류에 관한 전시물. 성병의 여러 종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성 성기와 여성의 나체 이미지를 활용. 성병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음. 이는 여성들이 성별의 원인이자 매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여성들에 대한 성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면 수정 필요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①	콘텐츠	 <‘관음증’에 관한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관음증’에 대한 설명. 남을 훔쳐보거나 성행위를 보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특히 여성의 몸을 훔쳐보고자 하는 심리는 모든 남자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표현. 아울러 이를 성상업화와도 연결함. 타인의 사생활 및 성적인 행위를 훔쳐보는 행위는 폭력과 범죄임에도 남성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표현하고 있어 매우 문제적임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폐쇄 등 조치 필요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②	콘텐츠	 <'노출증'에 관한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노출증'에 대한 설명. 노출증은 여성의 욕망이며 여성의 노출이(남성에게)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성범죄의 여성 유발론'을 연상시킴. 아울러 '자신, 또는 애인의 벗은 몸, 섹스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올리는 행위'를 '유행'이라고 표현하며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처럼 표현. 짧은 문장 속에 '성범죄 여성 유발론'과 '리벤지 포르노' 등 젠더기반 폭력과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함 ☞ 성과 관련된 기획물을 전시할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전시물은 폐쇄 등 조치 필요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③	콘텐츠	 <'성매매' 및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전시물>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적 폭력으로서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전시물. 성적 폭력의 한 범주로서 성매매를 설명하면서도 관련 이미지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의 누드 실사와 유흥업소가 즐비한 사진들을 사용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느낄 수 없게 하며 결과적으로 성매매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임 ☞ 전시물의 이미지 수정 등 조치 필요

<국립제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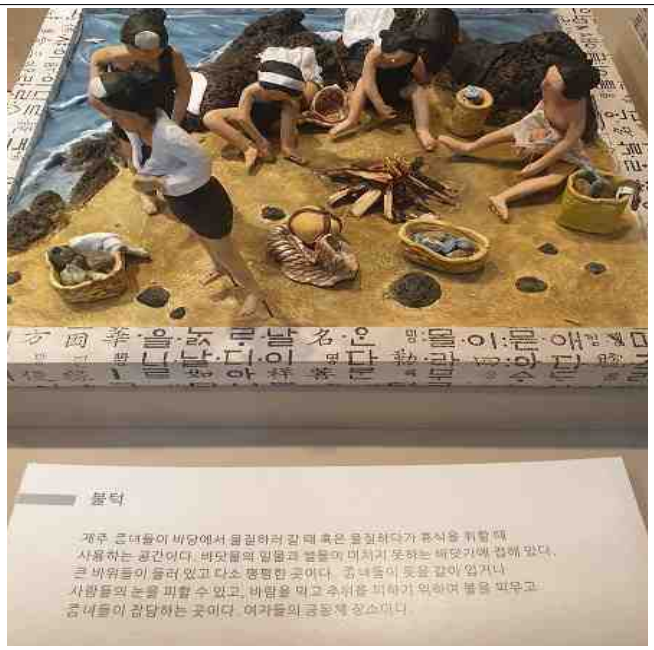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①	콘텐츠	 박물관 홍보용 책자 <아하! 제주도>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어린이 체험실에 비치된 박물관 홍보용 책자 <아하! 제주도> 뒤편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의 삽화. 대표자, 관리자, 보안요원, 시설 등 안전 및 관리자, 대표 등의 직무나 직책은 남성으로 재현되고 있고, 문화재 관리, 전시해설, 교육 등의 직무는 여성으로 재현됨. 특히 어린이용 교재로서 어린이들에게 직업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개선 필요 ☞ 직업이나 활동에 대해 표현할 때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직업과 활동에서의 다양한 성별 이미지 활용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②	콘텐츠	\ <문화재 기증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자료>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문화재 기증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자료. '5. 소장품 등록-연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 이미지 등장. 전문분야인 연구는 남성, 교육 · 전시안내 · 기초자료 검토 등은 여성으로 이미지화. 예외적으로 심의 · 의결 기능을 하는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전부 여성으로 배치하고 있음.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은 연구 등 전문적인 위치에 여성은 기초자료검토 및 교육과 같은 보조적인 위치에 역할을 부여하는 성별 위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둘째는 문화와 전시 관련 분야는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함. 요컨대, 문화재 기증방법과 과정에 대해 홍보하면서 여성인물을 부각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음으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 문화재 기증 과정에 대한 홍보물에 인물 이미지 사용 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인물 이미지로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③	콘텐츠	 **<행사 홍보 리플렛> 토요박물관 산책**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주민 대상 문화행사 홍보물로, 전체적으로 파란과 분홍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물 이미지에도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음. 이는 남성은 파란색이 적합하고 여성은 분홍색이 적합하다는 성별에 따른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색상 활용하여 이미지 구성 필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④	콘텐츠	 **<프로그램 및 행사 홍보 리플렛>**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홍보 리플렛. 리플렛 속 가족 이미지가'부모+자녀'로 이루어져 있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들이 배제를 경험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가족 및 관람객을 고려한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함 ☞ 가족과 관람객의 다양성(다양한 연령과 성별 구성원 이미지)을 반영하여 이미지 개선

<제주교육박물관>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①	콘텐츠	 **전시실 영상자료 <제주어 학습>**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학습 영상자료 중 '의류' 카테고리에 나오는 장면.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 중 여성은 아이를 업고 있는 이미지로 재현됨. 이는 여성은 '가족-돌봄'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음으로 개선 필요 ☞ 인물 및 이미지 기획 시 구성원 간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점검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자료임을 고려하여 교사-학생, 친구, 가족 등 여러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나 위계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②	콘텐츠	 **전시실 영상자료 <제주어 학습>**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학습 영상자료 중 '음식' 카테고리에 나오는 장면. 장모와 사위, 딸의 관계로 보이는 이들이 등장하고 장모가 사위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장면으로 이미지화 됨. 무엇보다 제주지역의 음식에 대한 교육자료에서 장모와 사위 관계를 차용하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며, 아울러 해당 장면에서 가족 내 '남성-사위'는 중요하고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성별 위계를 강화할 수 있음으로 개선 필요 ☞ 인물 및 이미지 기획 시 구성원 간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점검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자료임을 고려하여 교사-학생, 친구, 가족 등 여러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나 위계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③	콘텐츠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전시물 <제주도 세시풍속>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주도의 세시풍속을 보여주는 전시물. 제주의 세시풍속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농사의 주기, 즉 절기에 따라 신앙과 생산의 공동체가 절후에 맞게 일정하게 치르는 명절, 의식, 놀이의 관습이다. 매년 그 날이 되면, 생활 속에서 믿고 지켜온 풍습이다.” 설명에 의하면 제주도의 세시풍속이란 도민의 신앙과 노동, 공동체적 삶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삶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재현되고 있음. 닭을 잡고, 제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굿을 하는 모습은 모두 남성으로 표현되고 여성의 모습은 5월 단오절 그네뛰기, 아기 업은 모습,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 김장담그기 등 돌봄을 수행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그려짐. 이는 실제 제주지역의 성역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현물로서 비가시화된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제주의 세시풍속 콘텐츠에 남녀노소 다양한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한 예로, 제례 및 민간신앙(신당, 굿)에서 여성들의 역할 및 노동 영역에서 여성들의 노동과 중간산-해안 지역 등 지역별 다양한 노동 이미지 사용
성 차별적 표현/비하 ①	콘텐츠	 해녀 관련 <상설전시실>

평가 항목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상설전시실'의 '불턱'에 관한 디오라마와 설명. 불턱에 관한 설명으로 '해녀들이 잡담을 하는 곳'이라고 표현. '잡담'의 사전적 의미는 '쓸데없이 지껄이는 말'로 해녀들이 일상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행위를 비하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불턱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축소할 수 있음. 불턱은 해녀들이 가정과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거나, 물질기술을 전수되거나, 해녀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등 해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론의 장소로서의 의의가 있음. 따라서 불턱은 해녀들의 복합적인 활동과 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불턱은'해녀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자 공론의 장'으로서 작품 해설 수정·보완 필요
성 차별적 표현/비하 ②	콘텐츠	 <제주어전시관> 영상자료 '제주어 학습'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	시청각 영상물에서 해녀의 이미지가 성적으로 표현됨. 유두, Y존, 섹슈얼한 포즈 등 지나치게 여성의 신체 일부를 드러냄으로써, 해녀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단어와 문장에 맞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 해녀에 대한 섹슈얼한 이미지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개선 필요.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시물의 경우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 필요 ☞ 특정 성, 특히 여성에 대한 외모를 강조하는 이미지 활용은 지양. 이미지 개선 필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발 행 일 2019년 12월 20일
발 행 인 원 희 룡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064-710-6542, Fax.064-710-6519
http://www.jeju.go.kr/index.htm
인 쇄 소 참디자인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555-0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http://www.jeju.go.kr/index.htm